

脾胃生理에 援用되는 黃帝內經 語句에 關한 研究

元 秦 喜*

ABSTRACT

Studies on the phrases of Yellow Emperor's internal classic(黃帝內經)
for the physiology on the spleen and stomach

The research of the phrases related with physiology of stomach and spleen in the contents of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known as the Bible of oriental medicine will make a contribution to a deep understanding of disease of stomach and spleen and a proper clinic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m.

In this research of the most appropriate glosses recorded nine kinds of representative medical books including Huang Di Nei Jing Somoon(黃帝內經素問) of Wang Bing(王冰) were picked out:

The summaries of the selected contents are as follows:

1. The word "saliva(涎)" in "the spleen controls saliva(脾爲涎)" can be viewed as a generic term referring to oral cavity secretion gland as well as the secretion fluid of salivary gland.
2. The phrases "a large reservoir(太倉)", "barn organs(倉廩之官)", "a reserboir of food stuff(水穀之海)", "a stomach as the market(胃爲之市)", etc mean the function of stomach to receive food(胃主受納).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脾系內科敎室, 圓光大學校 附屬 光州韓方病院 內科課長

※ 본 논문은 1995년 9월 18일 대한한의학회에 제출된 논문임.

3. The phase "generation of five tastes(五味出焉)" means both "the function of stomach to transform food into chyme(胃主腐熟)" and "the channelling function of spleen.(脾主運化)"
4. The flowing of the food-Qi(食氣) into stomach brings about spreading Jung(精) into liver and then percolating Jung(精) flow into channel. The channel-Qi(脈氣) flows into lung through channel. As a result, all kinds of channels gather together in lung and Jung(精) is sent into skin and hair. The assembly of Jung(精) with skins and channels moves Qi(氣) into fu-organ and so Jung(精) and mental activity(神明) in fu-organ(府) come to be in four organs(四臟).
Then if Qi(氣) comes back to power balance unit(權衡) being in the state of equilibrium(權衡以平), the hole of Qi(氣口) comes to determine the matter of life and death through achieving Chun-quan-chi(寸-關-尺).
The above mentioned phrases means the digestion, asorption and transmission of food.
When food is taken in stomach, Jung-Qi(精氣) comes to be over flowed upward into spleen, back into lung, finally downward into bladders through water-conduit(水道) controlled by lung. When water-Jung(水精) radiates into whole body with channels of five organs(五臟), both of them fit together with and yin-yang(陰-陽). Therefore, the grasping of the rise and decline of yin-yang(陰-陽) is necessary to consult patients.
The above mentioned phrases is properly viewed to designate the asorption, transmission and excretion of food.
5. Spleen controls flesh(脾之合肉也), the state of spleen is known by human lips, and what this means is that liver plays functions of spread and expansion(肝主疏泄).
6. The phrase "Jung Jung"((中精)) in "gallbladder dominates Jung Jung(膽主中精)", which in one of the specific expression of "liver plays functions of spread and expansion(肝主疏泄).
7. It is right that the phase "The eleven organs in all are determined by gallbladder"(凡十一臟取決於膽也) is correctly paraphrased as "only one of ten organs, spleen, is determined by gallbladder."(凡十, 一臟取決於膽也)

8. The small intestine is an organ, which receives the materials digested and sends them out. This means that the function of transforming materials(化物) factually refers to that of separating clarity and blur(泌別清濁). And it is also thought to have the function of ascending clarity and descending blur(升清降濁).
9. A large intestine is a transmitting organ(傳導之官), from which a change comes out(變化出焉). the phrase "change"(變化) in this sentence means both the intake of water and nutrition and the formation procedure of stool through excretion of mucocele.

I. 緒論

《黃帝內經》은 戰國에서 秦漢時代 사이에 저술된 현존하는 동양의학의 최고의 의서로서 그 내용은 기초이론으로부터 질병의 설명·진단·치료·養生·鍼灸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특히 기초이론 부분은 과거 의학이론의 총결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일천여년 동안 한의학 이론의 準則이 되었다.¹⁾

脾는 消化系統을 위주로 하고 이외에 면역, 대사, 혈액, 肌肉, 내분비, 신경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多器官·多系統의 機能單位」로서²⁾ — 보통 '脾系'라고 부른다 — 脾系의 범주에 귀속되는 주된 생리기능으로는 胃主受納, 胃主腐熟水穀, 胃主布散精氣·滋養全身, 脾主運化, 脾主生血·統血, 脾主肌肉·四肢, 脾藏意, 肝主疏泄, 膽主中精, 小腸化物, 大腸傳導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생리기능은 모두 「脾主運化」의 일부분 또는 결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脾系의 생리는 「脾主運化」로 대표할 수 있다.

한의학에 있어서 脾系의 모든 생리기능은 《黃帝內經》에서 내원하였으며,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脾胃生理의 근본

이 되고 있는 《黃帝內經》의 語句를 연구하는 것은 脾胃生理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脾系領域의 규정과 확대 및 脾系疾患의 진단과 치료 등의 방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脾系領域에서 원용되는 《黃帝內經》의 語句를 연구하여 정리하고 新智見으로 재인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찰하였다.

II. 研究方法

脾系消化器內科에서 주로 인용되는 《黃帝內經》의 語句를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原文을 수록하고 校勘·字句解·註釋를 달고 國譯하였으며 저자의 按을 서술하였다.

가. 原文은 口唇, 舌, 咽, 胃, 脾, 肝膽, 小腸, 大腸으로 귀속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洪³⁾의 《精校黃帝內經素問》과 《精校黃帝內經靈樞》에 準하였다.

나. 校勘은 林⁴⁾의 《新校正》, 河北醫學院⁵⁾의 《黃帝內經素問校釋》, 楊⁶⁾의 《黃帝內

經太素》, 洪⁷⁾의 《精校黃帝內經素問·靈樞》를 참고하였다.

다.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音과 訓을 取擇하였다.

라. 註釋은 아래 9종 문헌의 註釋 가운데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註를 國譯하고 그 原文은 脚註를 달아서 참고하도록 하였다.

<參考 註解書目>

1. 王冰(唐) : 《黃帝內經素問》(以下 “王”으로 約한다.)
2.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以下 “楊”으로 約한다.)
3. 馬蒔(明) :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以下 “馬”로 約한다.)
4. 吳崑(明) : 《黃帝內經素問吳註》(以下 “吳”로 約한다.)
5. 張景岳(明) : 《類經》(以下 “景岳”으로 約한다.)
6. 張志聰(清) : 《素問集註》(以下 “張”으로 約한다.)
7. 高世栻(清) : 《素問直解》(以下 “高”로 約한다.)
8. 姚止庵(清) : 《素問經註節解》(以下 “姚”로 約한다.)
9. 李今庸(1988) : 《新編黃帝內經綱目》(以下 “綱目”으로 約한다.)

마. 譯은 直譯을 위주로 하되 문맥이 難澁한 경우는 含蓄된 뜻까지 이해되도록 意譯하였다.

바. 본 논문에 사용된 부호는 註釋에 [],

字句解에 (), 校勘에 ○, 引用文獻에는 《 》로 표시하였으며, 脚註는 1), 2), 3)……의 일련 번호로 표시하였다.

Ⅲ. 研究內容

第一章 口唇

[原文 1]

口唇^①者, 脾之官也. 《靈樞·五閱五使篇》

[校勘]

① 唇: 《素問·生氣通天論》과 《素問·六節臟象論》의 王注에는 ‘唇’字가 없다.

[譯]

口唇은 脾의 官이다.

[原文 2]

脾氣通於口, 脾^①和⁽¹⁾則口能知五穀^②矣. 《靈樞·脈度篇》

[校勘]

① 脾: 《太素》, 《難經》 및 《甲乙》에는 모두 ‘口’로 되어 있다.

② 知五穀: 《甲乙》 卷一 第四에는 ‘別五穀味’로 되어 있는데, 옳은 것 같다.

[字句解]

(1) 和: 調和, 正常. 景岳은 “반드시 五臟의 氣가 和한 후에야 各 竅가 職能을 발휘하고 그렇지 않고 臟에 病이 있으면 竅도 이에 상응한다”⁸⁾고 하였다.

[譯]

脾氣는 口로 通한다. 脾가 調和되면 口가 五

穀의 맛을 辨別할 수 있다.

[原文 3]

中央黃色，入通於脾，開竅⁽¹⁾於口，藏精於脾，故病在舌本⁽²⁾⁽¹⁾。其味甘，其類土，其畜牛，其穀稷⁽³⁾⁽²⁾，其應四時，上爲鎮星⁽⁴⁾⁽³⁾，是以知病之在肉也。其音宮，其數五，其臭香。《素問·金匱眞言論》

[校勘]

① 《素問識》에 ‘病在舌本’은 ‘病在脊’으로 고쳐야만 비로소 앞의 文例와 일치하게 된다고 하였다.

[字句解]

(1) 竅: 구멍 규. 몸에 있는 구멍, 곧耳目口鼻 따위.

(2) 舌本: 곧舌根을 말한다.

(3) 稷(직): 오늘날의高粱(수수)이다. 一說에 는 오늘날의 粳小米(좁쌀)이다.

(4) 鎮星: 土星의 別稱.

[註釋]

[1] 故病在舌本: 王은 “脾脈이 위로 舌本에 連하므로 病氣가 여기에 居한다”⁹⁾고 하였다.

[2] 其穀稷: 馬는 “稷은 色이 누렇고 그 맛이 달다. 그러므로 그 穀은 稷이다”¹⁰⁾라고 하였다.

[3] 上爲鎮星: 王은 “木의 精氣가 올라가서 歲星이 된다”¹¹⁾고 하였는데, 鎮星도 이를 본받는다.

[譯]

中央의 黃色은 안으로 들어가 脾와 通하고 口로 開竅하며 脾에 精을 저장한다. 그러므로 病이 舌本에 있다. 그 味는 甘이고 그 類는 土이며 그 畜은 牛이고 그 穀은 稷이다. 그것은

四時에 應하며 위로는 鎮星이 된다. 이따므로 病이 肉에 있음을 안다. 그 音은 宮이고 그 數는 五이며 그 臭는 香이다.

[原文 4]

中央生濕，濕生土^[1]，土生甘^[2]，甘生脾，脾生肉，肉生肺，脾主口。《素問·陰陽應象大論》

[註釋]

[1] 中央生濕，濕生土: 景岳은 “土는 中央에서 왕성하고 그 氣는 濕을 化生한다. 濕潤하면 土氣가 왕성하여 萬物이 生한다”¹²⁾고 하였다.

[2] 土生甘: 《尚書·洪範》에 “土爰稼穡”, “稼穡作甘”이라고 하였고, 孔穎達의 疏에 “甘味는 百穀에서 生하고 穀은 土의 所生이다. 그러므로 甘은 土의 味가 된다”¹³⁾고 하였다.

[譯]

中央은 濕을 生하고 濕은 土를 生하며 土는 甘味를 生하고 甘은 脾를 生하고 脾는 肉을 生하며 肉은 肺를 生한다. 脾는 口를 주관한다.

[原文 5]

脾之合⁽¹⁾肉也，其⁽²⁾榮⁽³⁾唇也^[1]，其主⁽⁴⁾肝也。《素問·五臟生成篇》

[字句解]

(1) 合: 配合.

(2) 其: 上句의 脾를 가리킨다.

(3) 榮: 榮華. 五臟의 精氣가 外部의 조직 또는 부위로 뚜렷하게 표현되는 것을 가리킨다.

(4) 主: 克我의 一方, 즉 脾가 克制를 받는 臟을 가리킨다.

[註釋]

[1] 其榮唇也: 王은 “口는 脾의 官이므로

唇을 영화롭게 한다”¹⁴⁾고 하였다.

[譯]

脾의 습은 肉이고 그 榮華는 唇에 나타나며 그 主는 肝이다.

[原文 6]

唇舌^①者, 肌肉之本也. 《靈樞·經脈篇》

[校勘]

① 唇舌: 응당 《難經》, 《脈經》, 《甲乙》 및 《千金》에 의거 ‘口唇’으로 고쳐야 한다.

[譯]

口唇은 肌肉의 本이다.

[原文 7]

五臟化液^① [1], 心爲^②汗, 肺爲涕, 肝爲淚, 脾爲涎^[2], 腎爲唾^[3], 是謂五液^③. 《素問·宣明五氣篇》

[校勘]

① 五臟化液: 《太素》에는 ‘五液’으로 되어 있고, 《類說》에는 ‘化’ 밑에 ‘爲’字가 더 있다.

② 《太素》에는 ‘爲’가 ‘主’로 되어 있다. 이하 同.

③ 是謂五液: 《太素》에는 ‘此五液所生’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五臟化液: 張은 “五臟이 水穀의 津滲를 받으면 外竅로 注하여 五液으로 變化된다”¹⁵⁾고 하였다.

[2] 心爲汗, 肺爲涕, 肝爲淚, 脾爲涎: 張은 “心은 血을 주관하므로 汗은 곧 血의 液이다. 肺竅인 鼻로 나오면 涕가 되고 肝竅인 目으로 나오면 淚가 되며 脾竅인 口로 나오면 涎이 된

다”¹⁶⁾고 하였다.

[3] 腎爲唾: 吳는 “唾는 廉泉二竅에서 나오는데 二竅는 舌本을 挾하고 少陰腎脈도 喉嚨을 따라 舌本을 挾하므로 唾는 腎의 液이 된다”¹⁷⁾고 하였다.

[譯]

五臟이 液을 化生하는데 心은 汗을, 肺는 涕를, 肝은 淚를, 脾는 涎을, 腎은 唾를 만든다. 이것을 五液이라고 말한다.

[考按]

이상 [原文] 1~7까지는 脾胃와 口竅와의 밀접한 關係를 설명한 것으로 후세의 “脾開竅於口, 其華在唇”의 이론은 모두 이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涎은 口에서 나오고 口는 脾의 竅이므로 涎은 脾의 液이 된다. 통상 唾와 合稱하여 涎唾 또는 唾液이라 부른다. 或者는 涎을 唾液腺分泌液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涎은 口腔分泌液의 총칭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¹⁸⁾

口腔은 食物의 咀嚼과 唾液의 分비를 통하여 ‘脾主運化’의 一任을 맡는 것으로 사료되고, “口唇者, 脾之官也”이므로 唇의 色澤을 보아 病의 淺深과 氣血의 盛衰를 알 수 있고 또한 口腔內의 病變이나 口中的 異味로 病理屬性을 알 수 있으므로 口唇은 脾胃病의 辨證에 매우 중요한 진단적 의의가 있다.

第二章 舌

[原文 1]

脾足太陰之脈, 起於大趾之端, 循趾內側白肉際
(1), 過核骨⁽²⁾後, 上內踝⁽³⁾前廉, 上踰⁽⁴⁾內, 循脛⁽²⁾

骨後，交出厥陰之前，上^③膝股內前廉，入腹，屬脾，絡胃，上膈，挾咽，連舌本^⑤，散舌下，其支者，復從胃，別上膈，注心中。《靈樞·經脈篇》

[校勘]

① 踰: 응당 《素問·陰陽離合論》 王注 引文에 의거하여 ‘膈’으로 고쳐야 《甲乙》，《脈經》，《太素》，《千金》，《聖濟總錄》 및 《十四經發揮》와 서로 부합된다.

② 脛: 《素問·陰陽離合論》，《素問·脈要精微論》 王注 引文 및 《甲乙》，《脈經》，《千金》，《圖經》，《十四經發揮》에는 모두 ‘脛’으로 되어 있다.

③ 上: 응당 《素問·脈要精微論》 王注와 《甲乙》，《脈經》，《太素》，《千金》，《圖經》 및 《十四經發揮》에 의거하여 ‘上’ 밑에 ‘循’ 字를 보충해야 한다.

[字句解]

(1) 白肉際: 手足의 掌背 兩面의 交界處를 가리킨다. 《校注十四經發揮》 卷中 承澹齋의 注에 말하기를 “手足의 赤肉과 白肉이 交界하는 處를 赤白肉際라고 하고 또는 白肉際라고 부른다”¹⁹⁾라고 하였다.

(2) 核骨: 足大趾 本節 뒤 內側에 돌출한 圓骨이다. 형태가 果核과 같다하여 核骨이라 부른다.

(3) 踝: 脛骨의 下端 양측에 융기한 高骨이다. 足內側에 있는 것을 內踝, 外側에 있는 것을 外踝라고 한다. 복사뼈 과.

(4) 膈: 小腿肚를 가리킨다. 《說文·四肢肉部》에 “膈, 腓腸也”라고 하였다. 종아리 脛.

(5) 舌本: 즉 舌根을 말한다.

[譯]

足太陰脾經의 脈은 엄지발가락의 끝에서 일어나 발가락 안쪽의 白肉際를 따라서 核骨의 뒤를 지나 內踝의 앞쪽 모퉁이로 올라가고 종아리 안으로 올리가서 脛骨의 뒤를 따라 足厥陰肝經과 교차하여 앞으로 나와 무릎과 대퇴의 안쪽 모퉁이로 올라가서 腹으로 들어가 脾에 귀속되고 胃에 絡하며 膈으로 올라가 咽을 끼고 舌本으로 이어지고 舌下에 흠어진다. 그 支는 다시 胃로부터 달리 膈으로 올라가서 心中으로 注入한다.

[原文 2]

足太陰之正⁽¹⁾，上至脾⁽²⁾，合於陽明，與別俱行⁽³⁾，上結⁽²⁾於咽，貫舌中^{(3) [1]}，此爲三合⁽⁴⁾也。《靈樞·經別篇》

[校勘]

① 上至脾: 《甲乙》에는 이 위에 ‘則別’ 二字가 더 있다.

② 結: 형태가 비슷하여 잘못 된 것이다. 응당 《太素》에 의거하여 ‘絡’으로 고쳐야 한다.

③ 舌中: 《太素》에는 ‘舌本’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正: 十二大經에서 別出別行하는 經脈을 가리킨다. 이것은 十二大經과는 다르고 또한 絡脈에 속하지도 않는다. 十二經脈의 別行하는 脈이므로 經別이라고 稱한다.

(2) 脾: 넓적다리 비.

(3) 與別俱行: ‘別’은 足陽明經에서 別出한 經脈을 가리킨다. 足太陰의 經別과 足陽明의 經別이 함께 行하는 것을 설명한다.

(4) 三合: 十二經의 表裏를 相互 配合하여 여섯개의 짝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六合이라고

한다. 이것은 六合의 하나로 足陽明과 足太陰을 三合이라고 한다.

[註釋]

[1] 貫舌中: 楊上善은 “위로 舌中을 貫하므로 舌下中脈은 足太陰이다”²⁰⁾라고 하였다.

[譯]

足太陰의 正은 위로 脾에 至하여 陽明과 合하고 足陽明에서 別出한 經脈과 함께 行하여 올라가서 咽에 絡하고 舌中을 貫한다. 이것이 三合이다.

[考按]

이상은 經絡學的으로 脾와 舌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舌은 肌性器官이고 脾主身之肌肉(《素問·痿論》)하므로 脾와 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第三章 咽

[原文 1]

咽喉小腸^①者, 傳送^②也. 《靈樞·脹論》

[校勘]

① 小腸: 《甲乙》에는 ‘少腹’으로 되어 있다.

② 送: 웅당 《甲乙》과 《太素》에 의거하여 ‘道’로 고쳐야 한다.

[註釋]

[1] 咽喉小腸者, 傳道也: 楊上善은 “咽은 水穀을 傳入하고 小腸은 水穀을 傳出하며 喉는 氣를 傳出入하므로 傳道이다”²¹⁾라고 하였다.

[譯]

咽喉와 小腸은 傳道하는 작용을 한다.

[原文 2]

咽喉^①者, 水穀之道也, 喉嚨^①者, 氣之所以上下者也, 會厭^②者, 音聲之戶也. 《靈樞·憂悲無言篇》

[校勘]

① 喉: 아래 ‘喉嚨’의 영향을 입은 誤衍으로 웅당 刪去해야 한다. 釋名의 釋形體에 “咽, 嚥物也”라고 하여 “水穀之道”와 뜻이 서로 통한다.

[字句解]

(1) 喉嚨: 즉 氣管의 上端. 또한 喉頭라고도 부른다. 안에 聲帶가 있으며 咽의 前下方에 위치한다. 嚨은 목구멍 룡.

(2) 會厭: 厭은 “壓”과 통한다. 會厭은 喉頭의 上口를 덮고 있는 樹葉狀의 구조물을 말한다.

[譯]

咽은 水穀의 길이다. 喉嚨은 氣가 오르고 내리는 곳이다. 會厭은 音聲의 집이다.

[原文 3]

故喉主天氣, 咽主地氣^①. 《素問·太陰陽明論》

[註釋]

[1] 喉主天氣, 咽主地氣: 高는 “喉는 呼吸을 司하고 肺氣가 나오는 곳이므로 喉가 天氣를 주관하고, 咽은 水穀을 納하고 아래로 胃로 通하므로 咽이 地氣를 주관한다”²²⁾고 하였다.

[譯]

그러므로 喉는 天氣를 주관하고 咽은 地氣를 주관한다.

[考按]

이상은 咽은 음식물이 경과하는 곳으로 脾胃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第四章 胃

[原文 1]

胃者, 太倉⁽¹⁾也^[1]. 《靈樞·脹論》

[字句解]

(1) 太倉: 古代에 京城에 설치한 큰 곡식 창고(大穀倉)이다.

[註釋]

[1] 胃者, 太倉也: 楊은 “胃는 水穀을 저장하여 공급하므로 臟腑의 太倉이 된다”^[23]고 하였다.

[譯]

胃는 太倉과 같다.

[原文 2]

脾胃⁽¹⁾者, 倉廩⁽¹⁾之官, 五味⁽²⁾出焉. 《素問·靈蘭秘典論》

[校勘]

① 胃: 《五行大義》에는 ‘胃’字가 없다.

[字句解]

(1) 倉廩: 곳집. 米穀의 창고. 곳집 창. 곳집 릉.

(2) 五味: 여기서는 水穀의 精微物質을 가리킨다.

[註釋]

[1] 倉廩之官, 五味出焉: 景岳은 “脾主運化하고 胃司受納하여 함께 水穀을 주관하므로 모두 倉廩의 官이 된다. 五味는 胃로 들어가면 脾를 경유하여 布散되므로 ‘五味가 나온다’고 말한다”^[24]고 하였다.

[譯]

脾胃는 倉廩의 官으로 五味가 나온다.

[考按]

王은 “倉廩은 受納를, 五味出焉은 味覺을 가리킨다”^[25]고 인식하였다.

[原文 3]

脾爲⁽¹⁾之使⁽¹⁾, 胃爲之市⁽²⁾^[1]. 《素問·刺禁論》

[校勘]

① 爲: 越本, 吳本, 藏本에는 모두 ‘謂’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使: 役使.

(2) 市: 集市.

[註釋]

[1] 脾爲之使, 胃爲之市: 姚는 “脾는 運化 水穀을 주관하여 一身을 營養하므로 ‘使’가 되고 胃는 水穀의 海로서 五味를 變化하므로 ‘市’가 된다”^[26]고 하였다.

[譯]

脾는 使가 되고 胃는 市가 된다.

[考按]

[原文 1]의 “太倉”, [原文 2]의 “倉廩”, [原文 3]의 “胃爲之市”, [原文 7]의 “水穀之海” 등은 胃主受納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原文 2]의 “五味出焉”은 脾主運化와 胃主腐熟의 代表語라고 사료된다.

[原文 4]

人之⁽¹⁾所受氣(1)者, 穀也. 穀之所注者, 胃也. 胃者, 水穀氣血之海也. 《靈樞·玉版篇》

[校勘]

① 之: 《靈樞略》에는 ‘之’字가 없다.

[字句解]

(1) 氣: 여기서는 精氣를 가리킨다.

[譯]

사람이 氣를 받는 곳은 穀이고 穀이 注하는 곳은 胃이므로 胃는 水穀과 氣血의 海이다.

[原文 5]

天食⁽¹⁾人以五氣⁽¹⁾,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²⁾, 上使五色修明⁽²⁾, 音聲能彰⁽³⁾⁽³⁾. 五味入口, 藏於腸⁽⁴⁾胃, 味有所藏, 以養五氣⁽⁴⁾⁽⁴⁾. 氣和而生, 津液⁽⁵⁾相成, 神⁽⁶⁾乃自生. 《素問·六節藏象論》

[校勘]

① ‘腸’字은 아마 傳鈔者가 ‘心肺’의 작을 맞추기 위해 妄增, 삽입한 것 같다. 《五臟別論》의 “五味入口, 藏於胃, 以養五臟氣”도 이와 句法이 相似하다.

[字句解]

(1) 食: “飼”와 通한다. 飼養·供給의 뜻이다. 기를 사, 먹일 사.

(2) 修明: 修는 美好的 뜻이니 修明은 明潤光澤하다는 뜻이다.

(3) 彰: 顯著, 著明. 드러날 창.

(4) 五氣: 여기서는 五臟의 氣를 가리킨다.

(5) 津液: 여기서는 인체의 精·氣·血·津液 등을 가리킨다.

(6) 神: 인체의 생명활동 및 그것의 각종 표현에 대한 개괄이다.

[註釋]

[1] 天食人以五氣: 吳는 “대체로 風氣는 肝으로 들어가고 暑氣는 心으로 들어가며 濕氣는 脾로 들어가고 燥氣는 肺로 들어가며 寒氣는 腎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亢盛하지 않아 害가 되지 않으면 능히 사람을 길러준다. 사람은 氣

交之中에서 鼻가 이것을 받아들여 五臟을 길러준다. 이것이 ‘하늘은 五氣로써 사람을 길러준다’는 것이다”²⁷⁾라고 하였다.

[2] 五氣入鼻, 藏於心肺: 景岳은 “五氣가 鼻로 들어가면 喉를 따라 心肺에 저장되어 五臟에 도달한다”²⁸⁾고 하였다.

[3]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 王은 “心은 얼굴색을 영화롭게 하고 肺는 音聲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氣가 心肺에 저장되면 위로 五色을 修潔分明하게 하고 音聲을 彰著하게 한다”²⁹⁾고 하였다.

[4] 味有所藏, 以養五氣: 姚는 “대체로 사람은 반드시 五臟을 갖추고 태어나고 五臟은 또한 반드시 五氣를 사용하여 움직인다. 그러나 마시거나 먹지 않으면 五臟의 氣는 또한 乾槁하여 閉塞된다. 이리므로 五臟의 氣는 반드시 五味의 氣를 빌어 길러진다”³⁰⁾고 하였다.

[譯]

하늘은 五氣로써 사람을 길러주고 땅은 五味로써 사람을 길러준다. 五氣는 코로 들어가서 心肺에 저장되어 위로 얼굴의 五色을 明潤光澤하게 하고 음성을 暢通하게 한다. 五味는 입으로 들어가서 胃에 저장되고 저장된 五味로써 五臟의 氣를 길러준다. 五臟의 氣가 調和되면 津液이 生하고 津液이 相成되면 神이 곧 自生한다.

[原文 6]

五穀入於胃也, 其糟粕津液⁽¹⁾宗氣, 分爲三陰⁽²⁾, 故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脈⁽³⁾, 而行呼吸焉⁽¹⁾. 營氣者, 泌⁽³⁾其⁽⁴⁾津液⁽⁵⁾, 注之於脈, 化以爲血⁽²⁾,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 以應刻數⁽⁶⁾

焉。衛氣者，出其悍氣⁽⁷⁾之標疾⁽⁸⁾ [3]，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而不休者也。《靈樞·邪客篇》

[校勘]

① 脈: 《甲乙》과 《太素》에 의거 마땅히 “肺”로 고쳐야 한다.

[字句解]

(1) 津液: 여기서 ‘津液’은 ‘營衛’를 포괄한다.

(2) 三隧: 景岳은 “隧는 道이다. 糟粕의 道는 下焦로 出하고 津液의 道는 中焦로 出하고 宗氣의 道는 上焦로 出한다. 그러므로 三隧로 나누어진다”³¹⁾라고 하였다.

(3) 泌: 여기서는 漚過로 해석한다.

(4) 其: 胃中水穀을 가리킨다.

(5) 津液: 여기서는 水穀에서 化生된 精微物質을 가리킨다.

(6) 刻數: 營氣가 全身을 50회 순환운행하는 시간을 말한다.

(7) 悍氣: 衛氣가 強悍하므로 “悍氣”라고 하였다. 사나울 한. 굳셀 한.

(8) 標疾: 標는 迅捷하다는 뜻. 衛氣의 운행이 신속하고 맹렬함을 형용한 것이다. 날릴 표.

[註釋]

[1] 以貫心肺而行呼吸焉: 楊은 “宗氣는 膻中에 積하여 心肺를 貫하고 喉嚨之中을 出入하여 呼吸을 行한다”³²⁾고 하였다.

[2]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楊은 “營氣는 中焦에서 起하여 五穀의 津液을 여과하여 手太陰肺脈中으로 注하고 血로 변화된다”³³⁾라고 하였다.

[3] 悍氣之標疾: 景岳은 “衛氣는 標疾滑利하여 脈中으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먼저 四肢· 分肉· 皮膚의 사이를 行한다”³⁴⁾고 하였다.

[譯]

五穀이 胃로 들어가면 그 糟粕, 津液, 宗氣의 三隧로 나뉘어진다. 그러므로 宗氣는 胸中에 쌓였다가 喉嚨으로 나와 心肺를 貫하여 呼吸을 行한다. 營氣는 水穀의 津液을 여과하여 脈으로 注入하여 변화하여 血을 만들어 四肢를 營養하고 안으로 五臟六腑로 注入하여 刻數에 應한다. 衛氣는 그 標疾한 悍氣를 出하여 먼저 四肢· 分肉· 皮膚 사이를 行하여 그치지 않는다.

[原文 7]

胃者, 水穀之海, 六腑之大源^①也. 五味入口, 藏^{②(1)}於胃以養五臟^③氣^{②(1)}, 氣口⁽³⁾亦^④太陰也⁽²⁾. 是以五臟六腑之氣味^{⑤(4)}, 皆出^⑥於胃⁽³⁾, 變見⁽⁵⁾於氣口⁽⁴⁾. 《素問·五臟別論》

[校勘]

① 大源: 《太素》에는 ‘大’ 밑에 ‘源’字가 없고, 《類說》에는 ‘大’字가 없는데, ‘六腑之源’과 ‘水穀之海’는 對文을 이루므로 《類說》이 옳다고 본다.

② 《難經》 一難의 虞注 引文에는 ‘藏’위에 ‘以’字가 더 있다.

③ 五臟: 《太素》와 《類證活人書》에는 ‘五’ 밑에 ‘藏’字가 없다.

④ 亦: 《枸校》에 ‘亦’은 ‘手’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⑤ 氣味: 《明抄二》와 《類說》에는 ‘氣’ 밑에 ‘味’字가 없다.

⑥ 出: 《林校》에 全元起本에는 ‘出’이 ‘入’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字句解]

(1) 藏: 受納.

(2) 五臟氣: 全身臟腑의 氣血을 가리킨다.

(3) 氣口: 양손의 腕後 橈骨頭 內側의 動脈搏動處.

(4) 五臟六腑之氣味: 즉 五臟六腑의 精氣.

(5) 見: “現”과 통한다.

[註釋]

[1] 藏於胃以養五臟氣: 楊은 “胃는 水穀의 海이고 六腑의 首長이므로 五味가 出하여 臟腑의 氣血을 養한다”³⁵⁾고 하였다.

[2] 氣口亦太陰也: 姚는 “胃는 足太陰의 腑이고 氣口는 手太陰의 經이다. 음식이 胃로 들어가면 運化하여 氣를 만드는 것은 脾이고, 氣가 五臟에 輸하여 氣口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肺이다. 그러므로 ”亦太陰也“라고 말한다”³⁶⁾라고 하였다. 景岳은 “氣口는 비록 手太陰이지만 실은 足太陰이 歸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氣口亦太陰也’라고 말한다”³⁷⁾고 하였다.

[3] 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靈樞·五味》에 “胃는 五臟六腑의 海이다. 水穀은 모두 胃로 들어가고 五臟六腑는 모두 胃에서 氣를 받는다”³⁸⁾라고 하였다.

[4] 變見於氣口: 黃元御는 “五臟六腑의 氣味는 모두 胃에서 出하여 脾, 肺로 轉輸되고 肺에서 本經으로 注入하여 氣口에서 變化되어 나타난다”³⁹⁾고 하였다.

[譯]

胃는 水穀의 海이고 六腑의 源이다. 五味가 口로 들어가면 胃에서 受納하여 五臟의 氣血을 養한다. 氣口도 또한 太陰이다. 그러므로 五臟六腑의 氣味는 모두 胃에서 出하고 氣口에 變化되어 나타난다.

[原文 8]

五臟者^①, 皆稟氣於胃, 胃者, 五臟之本也^①, 臟氣者^②, 不能自致於手太陰, 必因於胃氣, 乃^③至於手太陰也^②. 《素問·玉機眞臟論》

[校勘]

① 者: 《醫說》에는 ‘者’字가 없다.

② 臟氣者: 《太素》에는 ‘五臟’으로 되어 있다.

③ 乃: 응당 《甲乙經》과 《太素》에 의거하여 이 뒤에 ‘能’字를 보충해야 한다.

[註釋]

[1] 胃者, 五臟之本也: 景岳은 “胃는 水穀의 海가 되어 五臟을 養하므로 本이 된다”⁴⁰⁾고 하였다.

[2] 臟氣者, 不能自致於手太陰, 必因於胃氣, 乃至於手太陰也: 景岳은 “水穀이 胃로 들어가면 肺로 傳하여 五臟六腑가 모두 氣를 받으므로 臟氣는 반드시 胃氣에 의지한다”⁴¹⁾고 하였고, 張琦는 “陽明이 三陰三陽에 氣를 獨行하므로 臟腑는 반드시 胃氣을 빌어서 肺에 朝한다”⁴²⁾고 하였다.

[譯]

五臟은 모두 胃에서 氣를 받으므로 胃는 五臟의 근본이다. 臟氣는 스스로 手太陰에 이르지 못하고 반드시 胃氣에 의지하여야 곧 手太陰에 이를 수 있다.

[原文 9]

平人之常氣稟於胃^①, 胃^{②(1)}者, 平人之常氣也^①, 人無胃氣曰逆, 逆者^③死^②. 《素問·平人氣象論》

[校勘]

① 平人之常氣稟於胃: 《甲乙經》에는 “人常

稟氣於胃”로 되어 있으니, 응당 고치는 것이 좋다.

② 胃: 《玉機眞臟論》의 王注에 의거하여 ‘胃’ 밑에 마땅히 ‘氣’字를 보충해야 한다.

③ 者: 《太素》에는 ‘曰’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胃: 여기서는 胃氣를 가리킨다.

[註釋]

[1] 胃者, 平人之常氣也: 景岳은 “사람은 穀에서 氣를 받는바, 穀이 胃로 들어가면 五臟 六腑가 모두 氣를 받으므로 胃는 臟腑의 本이 되며, 平人の 常氣인 胃氣는一刻도 없어서는 안된다”⁴³⁾고 하였다.

[2] 人無胃氣曰逆, 逆者死: 景岳은 “胃氣의 脈은 雍容和緩한 상태”⁴⁴⁾라고 하였고, 張은 “사람이 胃氣가 없으면 生機가 이미 끊긴 것으로 죽는다”⁴⁵⁾라고 하였다.

[譯]

平人の 常氣는 胃에서 받으므로 胃는 平人の 常氣이다. 사람이 胃氣가 없으면 逆이라고 하는데 逆한 자는 죽는다.

[考按]

[原文 4]에서 [原文 9]는 인체의 精·氣(五臟의 氣, 宗氣, 營氣, 衛氣 등)·神·血·津液 등이 모두 脾胃水穀에 의하여 生成, 滋養됨을 설명한 것이다.

[原文 10]

食氣⁽¹⁾入胃, 散⁽²⁾精⁽³⁾於肝^[1], 淫⁽⁴⁾氣於筋^[2]. 食氣入胃, 濁氣⁽⁵⁾歸心^{① [3]}, 淫精於脈. 脈氣流經^[4], 經氣⁽⁶⁾歸於肺, 肺朝⁽⁷⁾百脈^[5], 輸精於皮毛. 毛⁽²⁾脈合精^[6], 行氣於府^[7]. 府精⁽⁸⁾神明⁽⁹⁾, 留⁽¹⁰⁾於四臟^[11]. 氣歸於權衡^[12]^[8], 權衡以平^[13]^[9],

氣口成寸^[10], 以決死生. 飲⁽¹⁴⁾入於^③胃, 游溢⁽¹⁵⁾精氣⁽¹⁶⁾,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④調水道^[11], 下輸膀胱, 水精⁽¹⁷⁾四布, 五經⁽¹⁸⁾并行, 合⁽¹⁹⁾於四時, 五臟陰陽^{⑤ [12]}, 揆度⁽²⁰⁾以爲常也^[13].

《素問·經脈別論》

[校勘]

① 心: 沈思敬이 말하기를 “心은 잘못이니 脾로 해야 마땅하다. 《靈樞·陰陽清濁篇》에 ‘足太陰獨受其濁’이라 하였는데 獨受라고 한 것을 보아 濁氣가 歸脾하는 외에 다른 어떤 臟器도 그 濁氣를 받지 아니함을 가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② 毛: 《素問入式運氣論奧》에는 ‘脈’위에 ‘毛’字가 없다.

③ 入於: 《內外傷辨惑論》에는 ‘入於’가 ‘食入’으로 되어 있다. 馬蒔가 말하기를 “飲入於胃” 이하는 飲을 말한 것이지 食을 말한 것이 아니므로 李氏가 고쳐서 ‘飲食入胃’라 한 것은 ‘下輸膀胱, 水精四布’의 뜻에 크게 위배된다”고 하였다.

④ 通: 《太素》에는 ‘肺’로 되어 있는데 뜻이 더욱 좋으니 응당 고치는 것이 옳다.

⑤ 陰陽: 《太素》에는 ‘陰陽動靜’ 4字로 되어 있다. 이어 근거하여 ‘陰陽’ 뒤에 ‘動靜’ 2字를 넣어야 한다.

[字句解]

(1) 食氣: 곧 음식물.

(2) 散: 散布, 輸送.

(3) 精: 음식물에서 化生되는 精微物質.

(4) 淫: 浸淫. 滋養의 뜻이 있다.

(5) 濁氣: 여기서는 食氣가 소화된 精微物質 중의 精華로운 部分.

- (6) 經氣: 經脈中에 流行하는 氣血.
- (7) 朝: 上奉, 集會의 뜻.
- (8) 府精: 經脈中의 氣血이 旺盛함을 가리킨다.
- (9) 神明: 心臟이 주관하는 神精明을 가리킨다.
- (10) 留: “流”로 해석해야 한다.
- (11) 四臟: 肝, 脾, 肺, 腎을 가리킨다.
- (12) 權衡: 平衡, 協調의 뜻.
- (13) 平: 定也
- (14) 飲: 물이 주요성분인 飲料를 가리킨다.
上文的 ‘食氣’와 구별하고 있다.
- (15) 游溢: 游는 流動. 溢은 滲溢. 津液이 胃로부터 넘쳐나오는 動態를 형용한다.
- (16) 精氣: 여기서는 津液을 가리킨다.
- (17) 水精: 水穀에서 化生된 精微物質(氣, 血, 津液 등)을 가리킨다.
- (18) 五經: 五臟의 經脈, 여기서는 全身의 經脈을 가리킨다.
- (19) 合: 應合, 符合.
- (20) 揆度: 度量, 觀察.

[註釋]

[1] 散精於肝: 姚는 “음식물이 消化된 精華는 먼저 肝으로 布散하는데, 肝이 生發의 令을 주관하기 때문이다”⁴⁶⁾라고 하였다.

[2] 淫氣於筋: 王은 “肝은 筋을 養하므로 穀精의 氣가 肝으로 들어가면 筋絡을 浸潤하고 滋養한다”⁴⁷⁾고 하였다.

[3] 濁氣歸心: 姚는 “음식에서 化生한 濁은 血을 化하는데, 心이 食氣를 얻어 滋養되어야 血이 비로소 生한다. 그러므로 ‘濁氣歸心’이라고 말한다”⁴⁸⁾고 하였다.

[4] 脈氣流經: 張은 “脈氣는 水穀의 精氣가 經脈中을 行하는 것이다”⁴⁹⁾라고 하였다.

[5]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王은 “肺는 華蓋가 되고 높이 위치하며 治節을 주관하므로 百脈의 朝會를 받는다”⁵⁰⁾고 하였다.

[6] 毛脈合精: 肺는 皮毛를 주관하고 心은 血脈을 주관하므로 이 句의 “毛”는 肺를, “脈”은 心을 대신한다. 張은 “무릇 皮膚는 氣를 주관하고 經脈은 血을 주관하므로 毛脈合精은 血氣의 相合이다”⁵¹⁾라고 하였다.

[7] 行氣於府: 《素問·脈要精微論》에 “夫脈者, 血之府也”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서 ‘府’는 經脈을 가리킨다. 本句에서 “肺心の 氣血은 또한 經脈의 中을 운행한다”고 하였다.

[8] 氣歸於權衡: 이 句는 精氣가 臟腑 사이에 均衡되게 분포됨을 말한 것이다.(綱目)

[9] 權衡以平: 이 句는 臟腑의 氣가 平衡·協調되면 十二經脈의 氣도 또한 평정됨을 말한 것이다.(綱目)

[10] 氣口成寸: 곧 氣口가 切脈의 부위를 형성한다. 景岳은 “氣口의 뜻은 ‘氣口’, ‘脈口’, ‘寸口’의 세가지가 있는데 실은 하나이다”⁵²⁾라고 하였다.

[11] 肺調水道: 肺氣의 治節肅降作用 아래서 津液이 三焦을 經유하여 全身의 道路로 敷布되어 保持·暢通됨을 가리킨다.(綱目)

[12] 合於四時, 五臟陰陽: 楊은 “밖으로 四時의 氣에 合하고 안으로 五臟의 陰陽動靜에 부응하여 法度에 상응한다”⁵³⁾고 하였다. 이 어구의 의미는 ‘水穀의 精氣가 인체에 輸布·運行되는 것은 四시에 五臟의 陰陽運動이 서로 적응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곧 體內外의 환경 변화를 따라서 상응하여 변화된다’는 말이다. (綱目)

[13] 揆度以爲常也: 本句의 의미는 ‘인체를 진찰할 때 상술한 원칙을 常規大法으로 삼는다’는 뜻이다.(綱目)

[譯]

食氣가 胃로 들어가면 肝으로 精을 散布하여 筋으로 스며들게 하고 食氣가 胃에 들어가면 濁氣가 心으로 들어가 脈으로 精을 스며들게 하며 脈氣는 經으로 흐르고 經氣는 肺로 돌아가니 肺에 脈이 모여 皮毛로 精을 보낸다. 毛와 脈이 精을 合하여 府로 氣를 運行하니 府의 精과 神明이 四臟에 머무르면 氣가 權衡으로 돌아가니 權衡이 平衡하게 되면 氣口가 寸·關·尺을 이루어 이로써 死生을 決斷한다. 飲이 胃로 들어가면 精氣가 흘러넘쳐 위로 脾에 보내지고 脾氣가 精을 散布하여 위로 肺에 돌아가니 水道를 通하게 하고 調節하여 膀胱으로 내려 보낸다. 水精이 全身皮毛로 四布되면 五臟의 經脈도 竝行하여 四時와 五臟의 陰陽動靜에 符合되니 이러한 陰陽의 盛衰를 헤아리는 것이 診察의 常規가 된다.

[考按]

本文은 食物과 水液이 胃中으로 들어가 腐熟 消化過程을 거친 다음 營養作用이 풍부한 精微 物質(精氣)은 肝臟으로 輸布되어 全身의 筋絡을 滋養하고, 비교적 濃厚한 部分은 心臟으로 注入하여 血液속으로 輸送되며, 水液中の 精華로운 部分은 여과되어 다시 脾의 運化作用을 거쳐 肺로 上輸되어 全身을 潤養함을 설명한 것이다. 本文은 脾主運化의 總結이다.

本文中 “飲入於胃……揆度以爲常也”은 脾의 水液代謝에 대한 運化 및 調節作用을 지적한 것이다. 索⁵⁴⁾이 음식물이 소화흡수되어 全身을

濡養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은 上文의 “食氣入胃……以決死生”과 錯覺한 것이 아닌가 한다. “食氣入胃……以決死生”은 食의 消化·吸收·輸布를, “飲入於胃……揆度以爲常也”는 飲의 吸收·輸布·排泄을 설명한 것이다.

[原文 11]

腎者, 胃之關也^{① [1]}, 關門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2]. 《素問·水熱血論》

[校勘]

① 也: 《太素》에는 ‘閉’로 되어 있다.

[註釋]

[1] 腎者, 胃之關也: 王은 “腎이 下焦와 二陰을 주관하므로 腎氣가 化하면 二陰이 通하고 二陰이 閉하면 胃가 填滿한다. 그러므로 ‘腎者 胃之關也’라고 한다”⁵⁵⁾고 하였다.

[2] 關門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 ‘關門不利’는 곧 腎氣의 不化로 二便이 癱閉한 것이다. ‘從其類’는 腎의 至陰屬性을 따라서 “盛水”의 病이 됨을 가리킨다.(綱目)

[譯]

腎의 胃의 關이다. 關門이 불리하므로 水가 모여서 그 類를 쫓는다.

[考按]

[原文 10]에서 보듯이 脾胃가 水液代謝를 주관한다. 하지만 “腎主水”하므로 脾胃의 運化水濕은 腎, 특히 腎陽의 협조를 받아야 완성된다. 그러므로 “腎을 胃의 關”이라고 한다.

[原文 12]

帝曰, 脾與胃以膜相連耳, 而能爲之行其^①津液何也?

岐伯曰, 足太陰者, 三陰也 [1], 其脈貫胃②, 屬脾, 絡噎②(1), 故太陰爲之行氣於三陰 [2]. 陽明者表也, 五臟六腑之海(2) [3] 也, 亦爲之行氣於三陽(3) [4]. 臟腑各因其經(4) [5] 而受氣於陽明, 故爲胃行其津液. 《素問·太陰陽明論》

[校勘]

① 其: 《太素》와 《甲乙》에는 모두 ‘其’字가 없다.

② 貫胃, 絡噎: 《靈樞·經脈篇》에는 ‘貫胃’가 ‘絡胃’로, ‘絡噎’이 ‘挾咽’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噎: 즉咽. 목구멍 익. 여기서는 食道上口를 가리킨다.

(2) 海: 여기서는 匯聚의 뜻이다.

(3) 三陽: 三陽經 및 六腑.

(4) 其經: 즉 脾經을 가리킨다.

[註釋]

[1] 足太陰, 三陰也: 高는 “厥陰은 一陰, 少陰은 二陰, 太陰은 三陰이 되므로 足太陰脾는 三陰이다”⁵⁶⁾고 하였다.

[2] 太陰爲之行氣於三陰: 吳는 “脾는 陽明의 氣를 運行하여 諸陰으로 들어가게 한다”⁵⁷⁾고 하였다.

[3] 五臟六腑之海: 陽明胃는 水穀의 受納을 주관하고 臟腑氣血은 모두 水穀에서 來源하므로 胃는 ‘五臟六腑의 海’가 된다.(綱目)

[4] 亦爲之行氣於三陽: 景岳은 “비록 陽明은 三陽으로 行氣하지만, 또한 脾氣에 의뢰한 뒤에 行한다. 그러므로 ‘亦’이라고 말한 것이다”⁵⁸⁾라고 하였다.

[5] 臟腑各因其經: 姚는 “五臟六腑는 반드시 脾의 運化에 의지하여 胃氣를 받아 滋養되

고 胃의 津液은 또한 반드시 脾의 運化에 의지하여 五臟六腑로 分配된다”⁵⁹⁾고 하였다.

[譯]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脾는 胃와 膜으로써 서로 이어져 있고 胃를 위해서 胃의 津液을 行하게 하니 무슨 까닭인가? 岐伯이 답하기를 足太陰은 三陰으로 그 脈은 胃를 貫하여 脾에 屬하고 噎에 絡한다. 그러므로 太陰은 胃를 위해서 三陰으로 氣를 行하게 한다. 陽明은 太陰의 表이며 五臟六腑의 海이므로 (脾는) 또한 胃를 위해서 三陽으로 氣를 行하게 한다. 五臟六腑는 각각 脾經에 의뢰하여 陽明에서 氣를 받는다. 그러므로 胃를 위해서 그 津液을 行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考按]

本文은 脾가 水穀精微를 運化하는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運化作用이 經脈의 內的連繫를 거쳐 완성됨을 지적한 것이다.

[原文 13]

六腑者, 傳化物⁽¹⁾而不藏, 故實⁽¹⁾而不能滿也. 所以然者, 水穀入口, 則胃實而腸虛⁽²⁾, 食下, 則腸實而胃虛. 《素問·五臟別論》

[字句解]

(1) 化物: 水穀 및 그것이 變化된 糟粕, 津液 등을 가리킨다.

[註釋]

[1] 實而不能滿: 實은 六腑는 水穀을 傳化하여 實과 虛가 交替하고 동시에 充滿할 수는 없음을 가리킨다.(綱目) 吳는 “水穀은 糟粕으로 化하여 형상이 있으므로 實하면 傳化하여 滿하지 않는다”⁶⁰⁾고 하였다.

[2] 胃實而腸虛: 姚는 “食이 존재하는 곳은 實하고 食이 不在하는 곳은 虛하다”⁶¹⁾고 하였고, 楊은 “胃가 虛하므로 氣가 올라가고 腸이 虛하므로 氣가 내려간다”⁶²⁾고 하였다.

[譯]

六腑는 化物을 傳하여 저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實하되 滿할 수 없다. 그러한 까닭은 水穀이 入口로 들어가면 胃는 實하고 腸은 虛하며 飲食이 내려가면 腸은 實하고 胃는 虛하다.

[原文 14]

腸胃之長, 凡五丈八尺四寸^①, 受水穀九斗二升一合合之大半^②, 此腸胃所受水穀之數也. 平人則不然, 胃滿則腸虛, 腸滿則胃虛, 更虛更滿^③, 故氣^④得上下, 五臟安定, 血脈和利^⑤, 精神乃居, 故神者, 水穀之精氣也. 《靈樞·平人絕穀篇》

[校勘]

① 凡五丈八尺四寸: 《太素》에는 ‘凡長六丈四寸四分’으로 되어 있다. 按: 《太素》가 《靈樞·腸胃篇》“腸胃所入所出, 長六丈四寸四分”의 記述과 부합되는 바, 唇에서 齒까지와 齒에서 會厭 및 咽에서 胃까지의 一段도 그 안에 포함되어 계산된 것이다.

② 九斗二升一合合之大半: 《太素》에는 ‘六斗六升六合八分之一’로 되어 있고, 《難經》에는 ‘八斗七升六合八分合之一’로 되어 있다.

③ 更虛更滿: 《甲乙》, 《太素》 및 《千金》에는 모두 ‘更滿更虛’로 되어 있다.

④ 故氣: 《千金》, 《靈樞略》 및 《普濟方》 引文에는 모두 없다.

⑤ 利: 周本에는 ‘則’으로 되어 있다.

[譯]

腸胃의 길이는 모두 5丈 8尺 4寸으로 水穀 9斗 2升 1合 7/10을 받으니 이것이 腸胃가 받는 水穀의 數量이다. 平人은 그렇치 않아 胃가 滿하면 腸이 虛하고 腸이 滿하면 胃가 虛하여 虛하였다가 滿하였다가 한다. 그러므로 氣가 오르내리고 五臟이 안정되고 血脈이 和利하면 精神이 곧 居한다. 그러므로 神은 水穀의 精氣이다.

[考按]

[原文 13]의 “水穀入口, 則胃實而腸虛, 食下, 則腸實而胃虛”와 本文의 “胃滿則腸虛, 腸滿則胃虛, 更虛更滿”은 모두 胃의 排出作用 및 ‘胃氣下行’의 生理機能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原文 15]

胃之^①五竅者, 閭里^①門戶也. 《靈樞·脹論》

[校勘]

① 胃之: 孫鼎宜는 ‘胃之’二字는 衍文이라고 하였다.

[字句解]

(1) 閭里: 景岳은 “閭, 巷門也. 里, 隣里也”라고 하였다. 《周禮》에 “五家爲比, 五比爲閭”라고 하였으므로 대개 25家가 閭가 된다. 《風俗通》에 “五家爲軌, 十軌爲里”라고 하였으므로 대개 50家가 里가 된다. 閭는 마을려.

[譯]

胃의 五竅는 閭里門戶이다.

[考按]

胃의 五竅가 閭里門戶가 된다는 것은 胃에 五竅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위로 胃脘으로부터 아래로 小腸, 大腸까지 모두 胃에 속하

므로(《靈樞·本輸》에 “大腸小腸, 皆屬於胃”라고 하였다) ‘閭里門戶’라고 말한 것이다. 예를 들면 咽門, 賁門, 幽門, 闌門, 魄門은 모두 胃氣가 行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전부 胃의 五竅에 屬한다.

[原文 16]

凡陽有五, 五五二十五陽^[1]. ……所謂陽者, 胃脘之陽^[1]也. 《素問·陰陽別論》

[字句解]

(1) 胃脘之陽: 胃氣를 말한다.

[註釋]

[1] 五五二十五陽 : 張은 “이른바 二十五陽은 곧 胃脘에서 발생한 陽이다. 胃脘은 中焦의 부분으로 水穀의 精氣를 化生하여 五臟의 滋養을 주관한다. 무릇 四時의 脈은……모두 微和한 胃氣를 得한다. 그러므로 二十五陽이 된다”⁶³⁾고 하였다.

[譯]

무릇 陽은 다섯이 있으니 5×5=25의 陽이 있다. ……이른바 陽은 胃脘의 陽이다.

[原文 17]

陽明主肉^①, 其脈俠鼻絡於目. 《素問·熱論》

[校勘]

① 肉: 《外臺》와 《傷寒補亡論》에는 ‘肌肉’으로 되어 있다.

[譯]

陽明은 肉을 주관하고 그 脈은 鼻를 俠하고 目에 絡한다.

[考按]

本文은 足陽明胃도 足太陰脾와 마찬가지로

肌肉을 主司하는 속성이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原文 18]

太陰司天^[1], 其化以濕, ……陽明司天, 其化以燥. 《素問·至真要大論》

[字句解]

(1) 司天: 客氣를 主司하는 제 3단계로 上半年의 氣候變化를 統管한다.

[譯]

太陰이 司天하면 그 變化는 濕으로써 하고 ……陽明이 司天하면 그 變化는 燥으로써 한다.

[考按]

本文은 胃燥脾濕, 즉 胃는 燥土로서 喜潤惡燥하고 脾는 濕土로서 喜燥惡潤하는 生理特性의 根據가 되었다.

第五章 脾

[原文 1]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 《素問·靈蘭秘典論》

[考按]

第4章 胃 [原文 1] 참조

[原文 2]

脾,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 其華在唇四白, 其充在肌, 其味甘, 其色黃, 此至陰之類, 通於土氣. 《素問·六節臟象論》

[考按]

第8章 大腸 [原文 2] 참조

[原文 3]

黃帝問曰, 太陰^①陽明爲表裏, 脾胃脈也生病, 而異者何也? 《素問·太陰陽明論》

[校勘]

① 太陰: 《甲乙》에는 ‘太陰’ 위에 ‘足’字가 더 있다.

[譯]

黃帝가 물어 가라사되 太陰과 陽明은 表裏가 되는데, 脾胃의 脈에 病이 생기면 무엇이 다른가?

[原文 4]

脾爲牝臟⁽¹⁾, 其色黃, 其時長夏, 其日戊己, 其音宮, 其味甘.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篇》

[字句解]

(1) 牝臟: 牝은 雌, 陰이다. 陰臟을 말한다.

[譯]

脾는 陰臟으로 그 色은 黃이고 그 時는 戊己이며 그 音은 宮이고 그 味는 甘이다.

[原文 5]

中央黃色, 入通於脾, 開竅於口, 藏精於脾, 故病在舌本. 其味甘, 其類土, 其畜牛, 其穀稷, 其應四時, 上爲鎮星, 是以知病之在肉也, 其音宮, 其數五, 其臭香. 《素問·金匱真言論》

[考按]

第1章 口唇部 [原文 1] 참조

[原文 6]

中央生濕, 濕生土⁽¹⁾, 土生甘⁽²⁾, 甘生脾, 脾生肉, 肉生肺, 脾主口. 其⁽¹⁾在天爲濕, 在地爲土, 在體爲肉, 在臟爲脾, 在色爲黃, 在音爲宮, 在聲

爲歌⁽³⁾, 在變動⁽²⁾爲噦⁽⁴⁾, 在竅爲口, 在味爲甘, 在志爲思. 《素問·陰陽應象大論》

[字句解]

(1) 其: 陰陽의 變化를 가리킨다.

(2) 變動: 臟氣가 變易失常하여 病이 됨을 가리킨다.

[註釋]

[1] 中央生濕, 濕生土: 景岳은 “土는 中央에서 왕성하고 그 氣는 濕을 化生한다. 濕潤하면 土氣가 왕성하여 萬物이 生한다”⁽⁶⁴⁾고 하였다.

[2] 土生甘: 《尙書·洪範》에 “土爰稼穡”, “稼穡作甘”이라고 하였고, 孔穎達의 疏에 “甘味는 百穀에서 生하고 穀은 土의 所生이다. 그러므로 甘은 土의 味가 된다”⁽⁶⁵⁾고 하였다.

[3] 在聲爲歌: 張은 “脾志는 思이다. 思하여 얻으면 歌한다”⁽⁶⁶⁾고 하였다.

[4] 噦: 景岳은 “噦는 呃逆이다”⁽⁶⁷⁾고 하였다.

[譯]

中央은 濕을 生하고 濕은 土를 生하며 土는 甘味를 生하고 甘은 脾를 生하고 脾는 肉을 生하며 肉은 肺를 生한다. 脾는 口를 주관한다. 陰陽의 變化는 天에서는 濕이 되고 地에서는 土가 되고 體에서는 肉이 되고 臟에서는 脾가 되고 色에서는 黃이 되고 音에서는 宮이 되고 聲에서는 歌가 되고 變動되면 噦가 되고 竅에서는 口가 되고 味에서는 甘이 되고 志에서는 思가 된다.

[原文 7]

帝曰, 脾與胃以膜相連耳, 而能爲之行其津液何

也?

岐伯曰, 足太陰者三陰也, 其脈貫胃, 屬脾, 絡噎, 故太陰爲之行氣於三陰. 陽明者表也, 五臟六腑之海也, 亦爲之行氣於三陽. 臟腑各因其經而受氣於陽明, 故爲胃行其津液. 《素問·太陰陽明論》

[考按]

第4章 胃部 [原文 11] 참조

[原文 8]

夫五味入^①口, 藏於胃, 脾爲之行其精^②氣⁽¹⁾ [1], 津液在脾^③ [2], 故令人口甘也, 此肥美⁽²⁾之所發^④也, 此人必數食甘美而多肥也. 《素問·奇病論》

[校勘]

① 入: 《太素》에는 ‘入’ 밑에 ‘於’字가 더 있다. 《腹中論》의 王注도 이와 일치한다.

② 精: 《太素》에는 ‘清’으로 되어 있다.

③ 津液在脾: 《外臺》에는 ‘溢在於脾’로 되어 있다.

④ 發: 《太素》에 ‘致’로 되어 있으니 옳다.

[字句解]

(1) 精氣: 水穀의 精微物質.

(2) 肥美: 곧 下句의 “數食甘美而多肥也”의 略語이다. 肥는 味厚肥膩한 葷食을 가리키고, 美는 味甘香炙한 食品을 가리킨다.

[註釋]

[1] 脾爲之行其精氣: 《素問·厥論》에 “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라고 하였다.

[2] 津液在脾: 張은 “津液이 五臟으로 輸布되지 않고 오직 脾에 머물러 脾氣가 上溢하면 口甘이 된다”⁶⁸⁾고 하였다.

[譯]

무릇 五味가 口로 들어가면 胃에 저장되고

脾는 胃를 위해 그 精氣를 行하게 하는데 津液이 脾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人으로 하여금 口甘하게 한다. 이것은 肥美의 소치이니, 이러한 人은 반드시 甘美한 食品을 자주 먹어 흔히 肥滿하다.

[原文 9]

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 《素問·厥論》

[譯]

脾는 주로 胃를 위해서 그 津液을 行하는 것이다.

[考按]

第4章 胃 [原文 11] 참조

[原文 10]

帝曰, 脾^①不主時, 何也?

岐伯曰, 脾者土也. 治⁽¹⁾中央^② [1], 常以四時長⁽²⁾四臟, 各十八日寄⁽³⁾治^[2], 不得獨主於時也. 脾臟者常著⁽⁴⁾胃^③土之精也 [3]. 土者生⁽⁴⁾萬物而法天地^[4], 故上下至頭足, 不得⁽⁵⁾主時也 [5]. 《素問·太陰陽明論》

[校勘]

① 脾: 《太素》에는 ‘脾’ 밑에 ‘之’字가 더 있다.

② 治中央: 《甲乙》에는 ‘土者中央’으로 되어 있다.

③ 脾臟者常著胃: 《太素》에는 ‘脾臟有常著’으로 되어 있는바, ‘者’는 ‘有’의 誤字인 것 같고, ‘胃’字는 없는 것이 옳으니, 本句는 應당 ‘脾臟者常著土之精也’로 해야 한다. 이른바 楊上善이 ‘脾臟在土之精妙也’라고 한 것이다.

④ 生: 《太素》에는 ‘主’로 되어 있다.

⑤ 得: 응당 《太素》의 楊注에 의거하여 ‘別’로 고쳐야 한다.

[字句解]

- (1) 治: 主也, 旺也.
- (2) 長: 生長, 長養.
- (3) 寄: 暫居의 뜻이다.
- (4) 著: 顯著.

[註釋]

[1] 治中央: 景岳은 “五臟所主에서 오직 脾는 土에 속하여 만물을 畜養하므로 中央에 居한다”⁶⁹⁾라고 하였다.

[2] 各十八日寄治: 張은 “土는 中央에 위치하여 四臟을 灌溉하므로 四季月中 각각 18일간 왕성하고, 따라서 四時中에 모두 土氣가 있으므로 時를 獨主하지 않는다”⁷⁰⁾고 하였다.

[3] 常著胃土之精也: 姚는 “胃土의 精은 脾를 經유하여 一身에 나타난다”⁷¹⁾고 하였다.

[4] 土者生萬物而法天地: 이 語句는 ‘사람의 脾는 天地의 土에서 取法하는데, 土는 만물을 生하므로 脾가 四臟·全身을 生養한다’는 것을 말한다.(綱目)

[5] 故上下至頭足, 不得主時也: 景岳은 “脾는 臟腑의 本으로 위로는 頭, 아래로는 足까지 無所不及하므로 一時를 獨主하지 않는다”⁷²⁾고 하였다.

[譯]

黃帝가 가라사되 脾는 時를 주관하지 않는데 무슨 까닭인가? 岐伯이 답하기를 脾는 土로서 中央을 주관하며 항상 四時에 四臟을 長養하여 각각 18일을 잠시 다스리고 홀로 時를 주관하지 않는다. 脾臟은 항상 胃土의 精을 著現하고 있는 만물을 生하며 天地를 法반으므로 상하로

頭足까지 至하고 時를 主하지 않는다.

[原文 11]

四肢^①皆稟氣^①於胃而不得至經^②, 必因於脾乃得稟也. 《素問·太陰陽明論》

[校勘]

① 四肢: 《甲乙》에는 ‘四肢’ 밑에 ‘者’字가 더 있다.

② 至經: 응당 《太素》에 의거하여 ‘徑至’로 고쳐야 한다. ‘徑’은 ‘直’의 뜻이 있다.

[字句解]

(1) 稟氣: 水穀의 精氣를 받다.

[譯]

四肢는 모두 胃에서 氣를 받는데 직접 도달하지 못하고 반드시 脾에 의지하여 곧 氣를 받는다.

[考按]

[原文 7]에서 [原文 11]는 脾가 胃의 消化作用을 幫助함을 설명한다. 혹자는 “脾”가 胃의 소화작용의 일부분을 돕고 또한 3大 代謝와 體液調節에 관여하므로 “脾”를 한의학의 “脾”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⁷³⁾, 옳다고 사료된다. [原文 11]의 “四肢皆稟氣於胃”와 [原文 28]의 “脾氣虛則四肢不用”은 脾主四末의 생리기능을 설명하는 것이다.

[原文 12]

五臟化液, 心爲汗, 肺爲涕, 肝爲淚, 脾爲涎, 腎爲唾, 是謂五液. 《素問·宣明五氣篇》

[考按]

第1章 口唇 [原文 3] 참조

[原文 13]

五臟所藏^[1],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①, 腎藏志^②, 是謂五臟所藏^③. 《素問·宣明五氣篇》

[校勘]

① 意: 《五行大義》에는 ‘志’로 되어 있다.

② 志: 《五行大義》에는 ‘精’으로 되어 있다.

③ 所藏: 衍文이 아닌가 싶다. 前後의 文例에 의거하여 마땅히 刪去해야 한다.

[註釋]

[1] 五臟所藏: 五臟에서 分別하여 주관하는 五神을 가리킨다.

[譯]

五臟에 저장되는 것: 心은 神을 저장하고 肺는 魄을 저장하고 肝은 魂을 저장하고 脾는 意를 저장하고 腎은 志를 저장한다. 이것을 五臟所藏이라고 한다.

[考按]

本文의 “脾藏意”와 [原文 6]의 “在志爲思”는 脾가 思惟活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原文 14]

五臟所惡^{①(1)}, 心惡熱^[1], 肺惡寒^[2], 肝惡風^[3], 脾惡濕^[4], 腎惡燥^[5], 是謂五惡^②. 《靈樞·九鍼論》

[校勘]

① 五臟所惡: 《太素》에는 ‘五惡’로 되어 있다.

② 是謂五惡: 《太素》에는 ‘此五臟氣所惡’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惡: 憎厭. 싫어할 오.

[釋]

[1] 心惡熱: 馬는 “心은 본래 火에 속하고 火의 性은 熱하여 熱을 받으면 病이 되므로 熱을 惡한다”⁷⁴⁾고 하였다.

[2] 肺惡寒: 馬는 “肺는 金에 속하고 金體는 寒하여 寒을 받으면 病이 되므로 寒을 惡한다”⁷⁵⁾고 하였다.

[3] 肝惡風: 馬는 “肝은 木에 속하여 그 性이 風氣와 相通하고 風을 감축하면 筋을 傷하므로 風을 惡한다”⁷⁶⁾고 하였다.

[4] 脾惡濕: 馬는 “脾는 土에 속하고 土가 濕하면 肉을 傷하므로 濕을 惡한다”⁷⁷⁾고 하였다.

[5] 腎惡燥: 馬는 “腎은 水에 속하고 그 性이 潤하다. 燥를 得하면 精이 마르므로 燥를 惡한다”⁷⁸⁾고 하였다.

[譯]

五臟이 싫어하는 것: 心은 熱을 싫어하고 肺는 寒을 싫어하고 肝은 風을 싫어하고 脾는 濕을 싫어하고 腎은 燥를 싫어한다. 이것을 五惡라고 한다.

[考按]

本文의 “脾惡濕”은 水濕이 停滯되면 脾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濕困脾土라고 稱한다) 사료된다.

[原文 15]

諸濕腫滿⁽¹⁾, 皆屬於脾. 《素問·至眞要大論》

[字句解]

(1) 腫滿: 肌膚浮腫, 身形脹滿.

[譯]

모든 濕으로 인한 浮腫, 脹滿은 모두 脾에 속한다.

[考按]

本文은 脾가 水濕의 運化機能을 잃으면 水濕이 滯留하는 각종 病證이 나타남을 설명한 것으로 脾가 水濕의 運化作用이 구비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原文 16]

五臟所主^[1], 心主脈, 肺主皮, 肝主筋, 脾主肉, 腎主骨, 是謂五主. 《素問·宣明五氣篇》

[註釋]

[1] 五臟所主: 張은 “五臟은 안에 있지만 각각 주관하는 外合이 있다”⁷⁹⁾고 하였다.

[譯]

五臟이 主하는 것: 心은 脈을 주관하고 肺는 皮를 주관하고 肝은 筋을 주관하고 脾는 肉을 주관하고 腎은 骨을 주관한다. 이것을 五主라고 한다.

[原文 17]

脾之合肉也, 其榮唇也, 其主肝也. 《素問·五臟生成篇》

[考按]

第1章 口唇 [原文 4] 참조

[原文 18]

脾主^[1]身之肌肉. 《素問·痿論》

[字句解]

(1) 主: 主持. 또한 滋養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譯]

脾는 몸의 肌肉을 주관한다.

[原文 19]

脾合胃, 胃者, 肉其應^[1], ……脾應肉. 《靈樞·本臟篇》

[字句解]

(1) 應: 外應. 외부의 형체조직과 내부의 臟腑가 상응하여 화합되는 것.

[譯]

脾는 胃와 合하고 胃는 肉이 胃와 相應한다. ……脾는 肉과 應한다.

[原文 20]

脾藏肌肉之氣也. 《素問·平人氣象論》

[譯]

脾는 肌肉의 氣를 저장한다.

[考按]

[原文 15]에서 [原文 19]는 脾胃機能의 好不好가 직접적으로 全身肌肉의 發育에 영향을 미침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肌肉의 豐盛 또는 瘦弱은 脾胃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原文 21]

脾者, 主爲衛^①, 使之迎糧^[1], 視唇舌好惡, 以知吉凶^[2]. 《靈樞·師傳篇》

[校勘]

① 脾者主爲衛: 《甲乙》에는 “脾主爲胃”로 되어 있고, 《校注》에 “《九墟》, 《太素》에는 ‘衛’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註釋]

[1] 脾者, 主爲衛, 使之迎糧: 景岳은 “衛는 臟腑의 護衛이다. 五臟六腑가 모두 脾에 의지

하여 滋養되므로 ‘脾主爲衛’라고 한다”⁸⁰⁾고 하였고 또한 “脾의 직책은 轉輸이므로 ‘使之迎糧’이라고 한다”⁸¹⁾고 하였다.

[2] 視唇舌好惡, 以知吉凶: 脾氣는 口로 通하고 唇을 영화롭게 하며 그 脈은 舌本에 連하고 舌下에 散하므로 唇舌의 色, 形 및 口味의 常變을 視察하면 脾臟의 強弱 및 病情의 輕重을 알 수 있다.(綱目)

[譯]

脾는 衛를 주관하며, 곡식을 받아들게 하는데, 唇舌의 好惡을 보아 吉凶을 안다.

[考按]

本文의 “脾者, 主爲衛”는 脾胃가 인체의 御邪 抗病하는 작용이 있어 인체의 免疫機能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靈樞·五癯津液篇》의 “脾爲之衛”도 같은 의미이다.

[原文 22]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潮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腑. 腑精神明, 留於四臟.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 飲入於胃, 游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并行, 合於四時, 五臟陰陽, 揆度以爲常也. 《素問·經脈別論》

[考按]

第4章 胃 [原文 6] 참조

[原文 23]

上焦如霧, 中焦如漚⁽¹⁾, 下焦如瀆⁽²⁾ [1]. 《靈樞·營衛生會篇》

[字句解]

(1) 漚: 物이 水中에 담겨져 변화되는 것.

(2) 瀆: 溝渠.

[註釋]

[1]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黃元御는 “上焦가 안개와 같다는 것은 氣가 위에서 盛한 것이고, 下焦가 도랑과 같다는 것은 水가 아래서 盛한 것이다. 中焦가 거품과 같다는 것은 水가 氣로, 氣가 水로 변화하려고 할때 泡沫이 生滅하는 형상이 거품과 같기 때문이다”⁸²⁾라고 하였다.

[譯]

上焦는 안개와 같고 中焦는 거품과 같고 下焦는 도랑과 같다.

[考按]

中焦如漚는 일반적으로 中焦의 脾胃가 水穀을 受盛하고 腐熟하여 “化其精微”하는 상태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原文 24]

中焦亦並^①胃中^② [1], 出^③上焦之後^② [2], 此^③所^④受氣^③者, 泌^④糟粕, 蒸^⑤津液^④, 化其^⑥精微, 上注於肺脈^⑦, 乃化而爲血^⑤, 以奉^⑧生身, 莫貴於此, 故獨得行於經隧, 命曰營氣. 《靈樞·營衛生會篇》

[校勘]

① 並: 日刻本 旁注에는 ‘出’로 되어 있고, 《難經》 滑注 引文에는 ‘傍’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같다.

② 中: 응당 《甲乙經》과 《太素》에 의거하여 ‘口’로 고쳐야 한다.

③ 出: 《千金》, 《普濟方》의 引文에는 ‘作’

으로 되어 있다.

④ 此所: 《太素》에는 이 밑에 ‘謂’字가 더 있다.

⑤ 蒸: 《太素》에는 ‘承’으로 되어 있다.

⑥ 其: 《病源》, 《千金》에는 ‘爲’로 되어 있다.

⑦ 脈: 《甲乙》에는 ‘脈’字가 없다.

⑧ 以奉: 《千金》, 《外臺》, 《普濟方》의 引文에는 모두 ‘奉以’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並: 依傍, 挨着.
- (2) 後: 下的 뜻이다.
- (3) 此: 中焦를 가리킨다.
- (4) 泌: 瀉出.
- (5) 蒸: 蒸化, 腐熟.

[註釋]

[1] 中焦亦並胃中: 이 句는 ‘中焦營氣는 또 한 胃口로부터 輸出됨’을 말한다.

[2] 出上焦之後: 이 句는 ‘中焦는 營氣를 輸出하는 부위로 上焦가 나오는 下方에 있다’는 말이다.

[3] 受氣: 景岳은 “穀食의 氣”⁸³⁾라고 하였다.

[4] 泌糟粕, 蒸津液: 黃元御는 “泌糟粕은 술이 익으면 糟粕과 分별하는 것과 같다”⁸⁴⁾고 하였다.

[5]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張은 “위로 肺脈으로 注하여 心神을 받들어 붉게 變化되어 血이 된다”⁸⁵⁾고 하였다.

[譯]

中焦는 또한 胃口로부터 輸出되는데 上焦의 아래에서 나온다. 中焦에서 穀氣를 받아 糟粕

을 分별하여 津液을 蒸化하고 精微로 變化시켜 肺脈으로 上注케 하면 곧 變化하여 血이 되어 몸을 받들어 生하게 하니 이보다 貴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經隧로 行하니 營氣라고 命名한다.

[考按]

本文은 消化, 吸收와 水穀精微의 輸布 및 血液을 化生하는 기능이 中焦에 있음을 설명한다.

[原文 25]

岐伯曰, 脾脈^①者土也, 孤臟⁽¹⁾, 以灌四傍^{(2) (1)}者也. 《素問·玉機眞臟論》

[校勘]

① 脈: 《太素》와 《脈經》에는 ‘脈’字가 없다.

[字句解]

- (1) 孤臟: 獨尊之臟.
- (2) 四傍: 肝心肺腎 四臟을 말한다.

[註釋]

[1] 孤臟, 以灌四傍: 楊은 “五行 중에 土가 홀로 尊이 된다”⁸⁶⁾고 하였고, 景岳은 “土는 定位가 없이 四季에 分旺하므로 孤臟이라 한다”⁸⁷⁾고 하였다.

[譯]

岐伯이 가로되 脾脈은 土이며, 孤臟으로서 肝心肺腎 四臟을 灌溉하는 것이다.

[原文 26]

谷氣^①通於脾^{② (1)}. 《素問·陰陽應象大論》

[校勘]

① 谷氣: 《太素》, 《千金》, 《甲乙》에는 ‘穀氣’로 되어 있다.

② 通於脾: 《外臺》에는 ‘感於脾’로 되어 있다.

[註釋]

[1] 谷氣通於脾: 景岳은 “계곡의 氣는 土氣이고 脾는 土臟이므로 서로 通한다”⁸⁸⁾고 하였고, 楊은 “五穀의 滋味는 脾로 들어가므로 穀氣는 脾에 通한다”⁸⁹⁾고 하였다.

[譯]

谷氣는 脾와 相通한다.

[考按]

谷氣는 文脈 前後의 “天氣”, “地氣”, “雷氣”, “雨氣” 등이 五臟과 상통한다고 한 것을 볼때 ‘穀氣’보다는 ‘山谷의 氣’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原文 27]

諸陰^①皆清, 足太陰獨受其濁^{(1) [1]}. 《靈樞·陰陽清濁篇》

[校勘]

① 諸陰: 《甲乙》에는 앞에 ‘故’字가 더 있다.

[字句解]

(1) 濁: 穀氣를 가리킨다.

[註釋]

[1] 足太陰獨受其濁: 景岳은 “脾는 穀氣를 받아 運化하므로 홀로 그 濁을 받아 清中の 濁이 된다”⁹⁰⁾고 하였다. 五臟은 모두 清을 受하는데, 오직 脾는 穀氣의 運化에 참여하므로 ‘獨受其濁’이라고 한다. (綱目)

[譯]

모든 陰은 모두 清한데 足太陰만이 오직 그 濁을 받는다.

[原文 28]

脾藏營^[1], 營舍意,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臟不安, 實則腹脹, 經^①洩^{(1) [2]}. 《靈樞·本神篇》

[校勘]

① 經: 《甲乙》, 《脈經》, 《千金》 및 《素問·調經論》의 王注에 인용한 《針經》에는 모두 ‘涇’으로 되어 있다. 王冰은 ‘涇’을 大便으로 ‘洩’를 小便으로 해석하였다. 오직 《太素》만이 ‘經’으로 되어 있고 楊注에 ‘經’을 女子月經으로 해석하였다.

[字句解]

(1) 涇洩: 小便을 가리킨다.

[註釋]

[1] 脾藏營: 景岳은 “中焦에서 氣를 받고 汁를 取하여 붉게 變化된 것이 血이므로 脾가 營을 藏한다”⁹¹⁾고 하였다.

[2] 實則腹脹, 涇洩不利: 張은 “腹은 脾土의 郭郭이므로 實하면 腹脹이 된다. 涇洩가 불리한 것은 그 水를 轉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⁹²⁾고 하였다.

[譯]

脾는 營을 藏하고 營에는 意가 起居한다. 脾氣가 虛하면 四肢을 쓰지 못하고 五臟이 불안하며 實하면 腹脹하고 小便이 불리하다.

[考按]

本文의 “營舍意”는 消化, 營養 등이 意思(心有所憶謂之意, 意之所存謂之志, 因志而存變謂之思)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原文 29]

何謂血?

岐伯曰, 中焦受氣⁽¹⁾取汁⁽²⁾, 變化而赤^[1], 是謂血. 《靈樞·決氣篇》

[字句解]

(1) 受氣: 受納穀氣.

(2) 取汁: 吸取精汁.

[註釋]

[1] 中焦受氣取汁, 變化而赤: 楊은 “五穀의 精汁이 中焦에서 手太陰脈中으로 注入하여 붉게 변화되어 脈을 따라 行하여 몸을 奉養하는 것이 血이다”⁹³⁾고 하였다.

[譯]

무엇이 血인가? 中焦에서 穀氣를 받아 精汁을 吸取하여 붉게 변화 된 것을 血이라고 한다.

[原文 30]

中焦出氣⁽¹⁾如露^[1], 上注溪谷⁽²⁾, 而滲孫脈^[2], 津液和調, 變化而赤爲血^[3]. 《靈樞·癰疽篇》

[字句解]

(1) 出氣: 楊上善은 ‘營氣’라고 하였다.

(2) 溪谷: 全身의 肌肉과 筋膜이 모인 곳에 형성된 다양한 크기의 空隙(틈).

[註釋]

[1] 中焦出氣如露: 이 句는 中焦에서 나온 營氣가 經脈과 絡脈을 마치 雨露가 草木에 灌溉하는 것처럼 통과하여 全身의 內外로 敷布됨을 말한 것이다.(綱目)

[2] 上注溪谷而滲孫脈: 이 句는 津液이 溪谷으로 流注하고 또한 細小한 孫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말한다.(綱目)

[3] 津液和調, 變化而赤爲血: 만약 孫脈中으로 스며든 津液이 脈中의 氣血과 和合하고 協調하면 心神의 氣化作用 下에서 붉게 변화되어 血의 일부가 된다.(綱目)

[譯]

中焦의 營氣는 이슬과 같이 위로 溪谷으로 注入하고 孫脈으로 스며드는데 津液이 화합, 협

조되면 붉게 변화하여 血이 된다.

[考按]

[原文 28]의 “脾藏營”과 [原文 29], [原文 30]은 血 生成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은 中焦의 脾胃에서 化生한 營氣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血은 胃의 受納腐熟과 脾의 運化水穀에 의하여 생성된다. 따라서 脾氣의 健旺與否는 血의 旺盛與否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第六章 肝膽

[原文 1]

膽者, 中正^①之官, 決斷出焉^[1]. 《素問·靈蘭秘典論》

[校勘]

① 中正: 《五行大義》에는 ‘中精’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中正之官, 決斷出焉: 姚는 “모든 臟腑는 각기 일정한 任務가 있지만, 膽이 모든 직책을 장악하여 그 是非를 가리고 그 猶豫를 단정하여 치우침이 없으므로 中正이라 하며 決斷이 나온다”⁹⁴⁾고 하였다.

[譯]

膽은 中正의 官으로 決斷이 나온다.

[原文 2]

肝合膽, 膽者, 中精⁽¹⁾之腑^[1]. 《靈樞·本輸篇》

[字句解]

(1) 中精: ‘中’은 ‘得’으로 해석한다. 精汁을 受納한다는 뜻이다.

[註釋]

[1] 中精之腑: 楊은 “膽은 오직 精液을 저장한다”⁹⁵⁾고 하였고, 《四十二難》에서는 “精汁 3습을 담는다”⁹⁶⁾고 하였다.

[譯]

肝은 膽과 습한다. 膽은 精汁을 受納하는 腑이다.

[考按]

膽의 “中精” 즉 膽汁의 저장과 배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肝의 疏泄機能에 의하여 통제, 조절되므로 실제로는 肝의 疏泄機能의 구체적인 표현중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原文 3]

凡十一臟取決於膽也^①. 《素問·六節臟象論》

[校勘]

① 凡十一臟取決於膽: 《五行大義》와 《雲笈七籤》에는 後人이 竄入한 것이라고 하였다.

[譯]

모든 11臟은 膽에서 決斷을 取한다.

[考按]

歷代로 本文에 대한 의견이 紛紛한바, 中正之官說⁹⁷⁾, 春生之氣說⁹⁸⁾, 相火說⁹⁹⁾ 등이 있고 이외에 “足少陽(膽)爲半表半裏之經”, “膽主甲子, 爲五運六氣之首” 등의 각도에서 分析한 사람도 있다.¹⁰⁰⁾ 최근에 朱寶華¹⁰¹⁾는 “凡十一臟取決於膽”을 “凡十, 一臟取決於膽”이라고 하고 “一臟”은 바로 ‘脾’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곧 “脾取決於膽”이라고 하여 脾의 기능은 膽汁이 決定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張錫純이 膽은 “精汁”을 內藏하고 相火가 寄寓하여 土臟인 脾胃에 작용하여 消化를 돕는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또한 小腸으로 消化液을 주입하는 것으로

脾가 있는데, “脾臟者……土之精也”(《素問·太陰陽明論》)이므로 脾는 肝臟의 일부분과 脾臟의 기능을 포괄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임상에서 보면 어떤 膽病 환자는 치료후에 脇痛 등 膽病의 증상은 소실되고도 食慾減退, 便溏 등 脾虛症狀이 비교적 오래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때 “脾의 기능은 膽汁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고, 朱의 “凡十, 一臟取決於膽”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사료된다.

[原文 4]

脾之合肉也, 其榮唇也, 其主肝也. 《素問·五臟生成篇》

[考按]

第1章 口唇 [原文 4] 참조

[原文 5]

木得金而伐⁽¹⁾, 火得水而滅, 土得木而達⁽²⁾, 金得火而缺, 水得土而絕, 萬物盡然⁽³⁾, 不可勝竭.

《素問·寶命全形論》

[校勘]

① 達: 丹波元簡은 ‘奪’으로 聲誤라고 하였다.

[字句解]

(1) 伐: 削伐, 被克制.

(2) 達: 阻隔의 뜻이다. 《說文》에 “達, 行不相遇也”라고 하였다.

(3) 盡然: 모두 이와 같다는 뜻.

[譯]

木은 金을 得하면 克制를 받고 火는 水를 得하면 滅하고 土는 木을 得하면 막히고 金은 火를 得하면 이지러지고 水는 土를 得하면 끓는다. 만물이 모두 이와 같아 다함이 없다.

[考按]

[原文 4]의 “脾……其主肝也”와 [原文 5]의 “土得木而達”은 肝과 脾胃의 사이에 “木克土”의 相剋關係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木克土는 克中有用하여 相輔相成의 의미가 있으므로 肝脾는 생리기능상 협조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를 朴¹⁰²⁾은 西洋醫學에서 脾液의 알칼리성과 膽汁의 酸性이 相互對立되어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한편으로 “脾……其主肝也”는 脾의 運化作用이 肝主疏泄의 영향하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原文 6]

食氣入胃，散精於肝，淫氣於筋. 《素問·經脈別論》

[考按]

第4章 胃 [原文 6] 참조.

第七章 小腸

[原文 1]

小腸者，受盛⁽¹⁾之官，化物出焉⁽¹⁾. 《素問·靈蘭秘典論》

[字句解]

(1) 受盛: 容納.

[註釋]

[1] 受盛之官，化物出焉: 景岳은 “小腸은 胃의 水穀을 받아 淸濁으로 나누어 水液은 前陰으로 糟粕은 後陰으로 歸하게 하므로 化物이 나온다”¹⁰³⁾고 하였다.

[譯]

小腸은 受盛의 官으로 化物이 나온다.

[考按]

小腸은 胃에서 초보적으로 소화된 食物을 받아 진일보 소화하여 水穀를 精微로 변화시키고 아울러 흡수하여 人體에서 소용되게 하고 食物의 찌꺼기는 大腸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므로 小腸의 “化物”은 실제로는 ‘泌別淸濁’으로 기능이며, 또한 脾胃의 升淸降濁機能의 구체적 體現이라고 사료된다. 小腸의 泌別淸濁機能은 또한 尿量의 多少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化物” 즉 “泌別淸濁”의 기능이 원활하여야 水穀精微의 化生 및 吸收가 잘 이루어지고 二便이 정상으로 유지된다.

[原文 2]

大腸屬上，小腸屬下，足陽明胃脈也⁽¹⁾. 大腸小腸，皆屬於胃，是足陽明^①也. 《靈樞·本輸篇》

[校勘]

① 足陽明: 이 뒤에 마땅히 《太素》에 의거 “經”字를 보충해야 한다.

[註釋]

[1] 大腸屬上，小腸屬下，足陽明胃脈也: 景岳은 “三里下 3寸이 上廉이고 上廉下 3寸이 下廉이다. 大腸은 上廉에, 小腸은 下廉에 속한다. 胃는 六腑의 長이다. 大小腸은 모두 胃와 연결되어 胃의 아래에 居하여 氣가 본래 一貫되므로 모두 胃에 속하고 그 下脛도 또한 足陽明經에 속한다”¹⁰⁴⁾고 하였다.

[譯]

大腸은 上廉에 속하고 小腸은 下廉에 속하는데 足陽明胃脈이다. 大腸, 小腸은 모두 胃에 속하니 이는 足陽明經이다.

[考按]

本文에서 “大腸小腸, 皆屬於胃”라고 한 것은 水穀의 受盛, 化物, 變化, 傳導 등이 모두 脾胃의 기능으로 消化系統의 일부분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原文 3]

肺合大腸, 大腸者, 傳道之腑, 心合小腸, 小腸者, 受盛之腑, 肝合膽, 膽者, 中精⁽¹⁾之腑^[1], 脾合胃, 胃者, 五穀之腑, 腎合膀胱, 膀胱者, 津液之腑也. 《靈樞·本輸篇》

[字句解]

(1) 中精: ‘中’은 ‘得’字로 해석한다. 즉 受納精汁.

[註釋]

[1] 中精之腑: 楊은 “膽은 오직 精液을 저장한다”¹⁰⁵⁾고 하였고, 《四十二難》에서는 “精汁 3合을 담는다”¹⁰⁶⁾고 하였다.

[譯]

肺는 大腸과 합하고 大腸은 傳道の 腑이다. 心은 小腸과 합하고 小腸은 受盛의 腑이다. 肝은 膽과 합하고 膽은 中精의 腑이다. 脾는 胃와 합하고 胃는 五穀의 腑이다. 腎은 膀胱과 합하고 膀胱은 津液의 腑이다.

第八章 大腸

[原文 1]

大腸者, 傳道⁽¹⁾之官, 變化出焉^[1]. 《素問·靈蘭秘典論》

[校勘]

① 道: 《三因方》에는 ‘送’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傳道: ‘道’는 ‘導’와 通한다. 즉 傳送, 運輸.

[註釋]

[1] 傳道之官, 變化出焉: 張은 “小腸에서 受盛한 것이 濟泌別汁하여 糟粕으로 변화되어 이것으로 배출된다”¹⁰⁷⁾고 하였다.

[譯]

大腸은 傳道の 官으로 變化가 나온다.

[考按]

本文의 “傳道”는 大便을 肛門으로 排出하는 기능을 말하고, “變化”는 大腸이 粘液을 分泌하여 附着作用을 통해서 大便을 형성하고 少量의 營養分과 多量의 水分을 吸收하는 기능을 말한 것으로 사료된다.

[原文 2]

脾,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者, 倉廩⁽¹⁾之本, 營之居也^[1], 名曰器⁽²⁾,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2], 其華在唇四白⁽³⁾, 其充在肌, 其味甘, 其色黃^①, 此至陰之類, 通於土氣^②^[3]. 《素問·六節臟象論》

[校勘]

① 其味甘, 其色黃: 《新校正》에 의거하여 刪去해야 한다.

②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通於土氣: 《讀素問鈔》에 “이 곳은 錯誤가 있는 것 같다. 마땅히 ‘脾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其華在唇四白, 其充在肌, 此至陰之類, 通於土氣, 胃大腸小腸三焦膀胱,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五行大義》와 《雲笈七籤》에는 ‘胃大腸小腸三焦膀胱’의 九字가 없다.

[字句解]

(1) 倉廩: 糧食倉庫.

(2) 器: 물건을 담는 器具. 여기서는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의 五腑를 가리킨다. 吳는 “水穀을 담아 器物과 같으므로 器하고 名한다”¹⁰⁸⁾고 하였다.

(3) 四白: 脣의 四際白肉이다.

[註釋]

[1] 脾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脾는 水穀精微의 轉輸와 營氣 등 영양물질의 化生을 주관하므로 “倉廩之本, 營之居也”라고 한다.(綱目)

[2]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 黃元御는 “水穀의 糟粕을 소화하고 五味를 運轉하여 上口로 들어가서 下竅로 나오는 것이다”¹⁰⁹⁾라고 하였고, 姚는 “大小腸脾胃膀胱은 모두 先入後出한다. 三焦는 氣를 주관하는데 함께 언급한 까닭은 三焦의 氣도 또한 飲食之味の 변화에 의지하여 升降하기 때문이다”¹¹⁰⁾고 하였다.

[3] 此至陰之類, 通於土氣: 張은 “脾는 陰中の 至陰이며 土氣와 通한다.……濁을 받는 것은 陰이 되므로 ‘至陰의 類’이다”¹¹¹⁾고 하였다.

[譯]

脾는 倉廩의 本으로 營이 起居하며 그 榮華는 脣四白에 나타나고 그 充滿은 肌에 나타난다. 이것은 至陰의 類로서 土氣와 通한다.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은 器라고 名하는데 능히 糟粕을 소화하고 五味을 運轉하여 入出하는 것이다.

[考按]

本文은 脾, 胃, 大腸, 小腸이 음식물의 소화, 흡수 및 그 精微의 輸布, 糟粕의 배설에 관여하는 중요한 臟器임을 설명한 것이다. “化糟粕, 轉味而入出”은 糟粕이 胃氣의 下降에 의하여 아래로 배설되고 水穀의 精氣는 脾氣의 上升에

의하여 上輸敷布된다는 의미로 脾升胃降의 生理狀態를 표현한다고 사료된다.

IV. 結 論

脾系消化器內科에서 생리설명에 원용되는 《黃帝內經》의 語句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脾爲涎」의 “涎”은 唾液腺分泌液을 포함한 口腔分泌液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太倉」, 「倉廩之官」, 「水穀之海」, 「胃爲之市」 등은 “胃主受納”의 의미이다.

3. 「五味出焉」은 “胃主腐熟”과 “脾主運化”의 의미이다.

4. 《經脈別論》의 “食氣入胃……以決死生”은 食의 消化·吸收·輸布로, “飲入於胃……揆度以爲常也”는 飲으로 吸收·輸布·排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脾……其主肝也」는 “肝主疏泄”의 의미를 內包한다고 사료된다.

6. 「膽者, 中精之腑」의 “中精”은 膽汁의 저장과 배설을 의미하며, 肝主疏泄의 구체적인 표현중의 하나이다.

7. 「凡十一臟取結於膽也」는 “凡十, 一臟(脾)取決於膽也”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8. 「小腸者……化物出焉」의 “化物”은 실제로는 “泌別清濁”의 기능이며, 또한 脾胃의 升清降濁의 구체적인 體現으로 사료된다.

9. 「大腸者…變化出焉」의 “變化”는 大腸에

서의 營養分 및 水分의 흡수와 粘液의 分泌를 통한 大便의 形成過程을 표현한 것이다.

參考文獻

1. 王冰：黃帝內經素問，旋風出版社，臺北，1979.
2. 楊上善：黃帝內經太素，大星文化社，서울，1986.
3. 林億：補注黃帝內經素問，中華書局，臺北，1966.
4. 張介賓：原本類經，大星文化社，서울，1982.
5. 河北醫學院：黃帝內經素問校釋，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2.
6. 馬蒔·張志聰：黃帝內經素問靈樞合篇，台聯國風出版社，臺北，1977.
7. 吳崑：黃帝內經素問吳註，山東科學技術出版社，山東，1983.
8. 高世栻：黃帝素問直解，科學技術文獻出版社，北京，1985.
9. 姚止庵：素問經註節解，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3.
10.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靈樞，東洋醫學研究院，서울，1985.
11. 李今庸：新編黃帝內經綱目，上海科學技術出版社，上海，1988.
12. 朱寶華：“凡十，一臟取決於膽”，山東中醫學院學報，Vol.16, No.4, 1992.
13. 朴恩貞 外：脾主運化에 관한 文獻的 考察，圓光韓醫大論文集，第六號，1989.
14. 元秦喜 外：脾虛證 本質에 對한 最近 研究 概況，大韓韓方內科學會誌，Vol.13, No.1, 1992.
15. 徐復霖 外：脾胃理論與臨床，湖南科學技術出版社，湖南，1990.
16. 危北海 外：中醫脾胃學說，北京出版社，北京，1993.
17. 錢承輝 外：中醫臟象學，上海中醫學院出版社，上海，1989.
18. 李樹棠：中醫基礎求真，吉林科學技術出版社，吉林，1991.
19. 邵念方：臟腑證治與用藥，山東科學技術出版社，山東，1982.
20. 索延昌：新脾胃論，山西科學教育出版社，山西，1986.
21. 上海中醫學院：中醫學基礎，商務印書館，香港，1981.
22. 金完熙 外：臟腑辨證論治，成輔社，서울，1985.
23. 朱邦賢 外：中醫學三百題，上海古籍出版社，上海，1989.
24. 劉燕池 外：中醫基礎理論問答，上海科學技術出版社，上海，1982.
25. 楊醫亞：中醫學問答，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5.

參考辭典類

1. 張登本 外：內經詞典，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0.
2. 韓醫學古典研究所：韓醫學大辭典(基礎理論編)，東洋醫學研究院，서울，1989.
3. 民衆書館編輯局：漢韓大字典，民衆書林，서울，

1986.

4.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5.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70.
6.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92.

脚註

- 1)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pp. 40-41, 19887.
- 2) 元秦喜 外: 脾虛證의 本質에 對한 最近 研究 概況, Vol. 13. No. 1, 1992.
-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 4) 林億: 補注黃帝內經素問, 中華書局, 臺北, 1966.
- 5)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 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 7) 註1) 斗 同
- 8) 景岳: “故其氣各有所通, 亦各有所用, 然必五臟氣和而後各稱其職, 否則臟有所病則竅有所應矣.”
- 9) 王: “脾脈上連舌本, 故病氣居之.”
- 10) 馬: “稷之色黃而其味甘, 故其穀稷.”
- 11) 王: “木之精氣上爲歲星.”
- 12) 景岳: “土旺中央, 其氣化濕. 濕潤則土氣旺而萬物生.”
- 13) 孔穎達: “甘味生於百穀, 穀是土之所生, 故甘爲土之味也.”
- 14) 王: “口爲脾之官, 故榮於唇, 唇謂四際白色之處, 非赤色也.”
- 15) 張: “水穀入口, 其味有五, 津液各注其道. 五臟受水穀之津淖, 注於外竅, 而化爲五液.”
- 16) 張: “心主血, 汗乃血之液也. 出於肺竅之鼻而爲涕, 出於肝竅之目而爲淚, 出於脾竅之口而爲涎.”
- 17) 吳: “唾出於廉泉二竅, 二竅挾舌本, 少陰腎脈循喉嚨, 挾舌本, 故唾爲腎液.”
- 18) 劉燕池 外: 中醫基礎理論問答,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p. 45, 1982.
- 19) 承: “手足之掌與指, 皆分赤白肉際, 在背面有毫毛部分曰赤肉, 掌面不生毫毛部分曰白肉, 赤肉白肉交界之所曰赤白肉際, 亦稱白肉際.”
- 20) 楊上善: “上貫於舌中, 故舌下中脈者, 足太陰也.”
- 21) 楊上善: “咽傳水穀而入, 小腸傳之而出, 喉傳氣之出入, 故爲傳道也.”
- 22) 高: “喉司呼吸, 肺氣所出, 故喉主天氣, 咽納水穀, 下通於胃, 故咽主地氣.”
- 23) 楊: “胃貯水穀以供, 故爲臟腑太倉也.”
- 24) 景岳: “脾主運化, 胃司受納, 通主水穀, 故皆爲倉廩之官. 五味入胃, 由脾布散, 故曰五味出焉.”
- 25) 王輝武 외: 《傷寒論》食慾辨證淺探, 上海中醫藥雜誌, 4: 40~41, 1985.
- 26) 姚: “趨走不息謂之使, 脾主運化水穀以營養夫一身, 其使之爲乎! 百物聚集謂之市, 胃謂水穀之海以變化夫五味, 其市之爲乎!”
- 27) 吳: “蓋謂風氣入肝, 暑氣入心, 濕氣入脾, 燥氣入肺, 寒氣入腎, 當其不亢不害, 則能養人.”

- 人在氣交之中，以鼻受之而養五臟，是天食人以五氣也。”
- 28) 景岳：“五氣入鼻，由喉而藏於心肺，以達五臟。”
- 29) 王：“心榮面色，肺主音聲，故氣藏於心肺，上使五色修潔分明，音聲彰著。”
- 30) 姚：“蓋人必具五臟以生，而五臟又必須五氣而運。然非飲之食之，則五臟之氣亦乾槁而閉塞矣。是五臟之氣，必借五味之氣以養也。”
- 31) 景岳：“隧，道也。糟粕之道出於下焦，津液之道出於中焦，宗氣之道出於上焦，故分爲三隧。”
- 32) 楊：“其清者宗氣積於胸中，名曰氣海，其氣貫於心肺，出入喉嚨之中而行呼吸。”
- 33) 楊：“營氣起於中焦，泌五穀津液，注於肺脈手太陰中，化而爲血。”
- 34) 景岳：“衛氣者，水穀之悍氣也。其氣慄疾滑利，不能入於脈中，故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而不休者也。”
- 35) 楊：“胃爲水穀之海，六腑之長，出五味以養臟腑氣血。”
- 36) 姚：“胃爲足太陰之腑，氣口乃手太陰之經。飲食入胃而能運化爲氣者脾也，氣充於五臟而使之著見於氣口者則是肺，故云亦太陰也。”
- 37) 景岳：“氣口雖爲手太陰，而實卽足太陰之所歸，故曰氣口亦太陰也。”
- 38) 靈樞：“胃者，五臟六腑之海也。水穀皆入於胃，五臟六腑皆稟氣於胃。”
- 39) 黃元御：“故五臟六腑之氣味皆出於胃，自胃而輸脾，自脾而輸肺，自肺而注本經，變見於氣口。”
- 40) 景岳：“胃爲水穀之海，以養五臟，故爲之本。”
- 41) 景岳：“穀入於胃，以傳與肺，五臟六腑皆以受氣，故臟氣必因於胃氣，乃得至於手太陰，而脈則見於氣口，此所以五臟之脈，必賴胃氣以爲之主也。”
- 42) 張琦：“中氣升則三陰皆升，中氣降則三陽皆降，而中氣之衰盛，視乎胃氣。……故陽明獨行氣於三陰三陽，而臟腑必借之以朝於肺。臟陰而腑陽，陽動而陰靜，陰不得陽，是謂孤陰，故不能自致於氣口也。”
- 43) 景岳：“土得天地中和之氣，長養萬物，分王四時，而人胃應之。凡平人之常，受氣於穀，穀入於胃，五臟六腑皆以受氣，故胃爲臟腑之本。此胃氣者，實平人之常氣，有不可以一刻者。”
- 44) 景岳：“胃氣之見於脈者，如《玉機真臟論》曰：‘脈弱以滑，是有胃氣’，《終始篇》曰：‘邪氣來也緊而疾，穀氣來也徐而和’，是皆胃氣之謂。大都脈代時宜無太過無不及，自有一種雍容和緩之狀者，便是胃氣之脈。”
- 45) 張：“人無胃氣，是生機已絕，絕則死矣。”
- 46) 姚：“食氣入胃，脾爲之運，糟粕下行，而其精華則先散布於肝經，以肝爲春木，主生發之令故也。”
- 47) 王：“肝養筋，故胃散穀精之氣入於肝，則浸潤滋養於筋絡矣。”
- 48) 姚：“食之所化，有清有濁。……濁化血，血有質，心得食氣以爲養，而血始生焉，故云濁氣歸心也。”
- 49) 張：“脈氣者，水穀之精氣而行於經脈中也。”
- 50) 王：“言脈氣流運，乃爲大經，經氣歸宗，上朝於肺，肺爲華蓋，位復居高，治節由之，故受百脈之朝會也。”
- 51) 張：“夫皮膚主氣，經脈主血，毛脈合精者，血

- 氣相合也。”
- 52) 景岳：“氣口之義，其名有三。手太陰肺經脈也，肺主諸氣，氣之盛衰見於此，故曰氣口，肺朝百脈，脈之大會聚於此，故曰脈口，脈出太淵，其長一寸九分，故曰寸口。是名雖三而一耳。”
- 53) 楊：“以外合四時之氣，內應五臟陰陽動靜，以應法度也。”
- 54) 索延昌：新脾胃論，山西科學教育出版社，山西省，p. 2, 1986.
- 55) 王：“關者所以司出入也。腎主下焦，膀胱爲腑，主其分注，關竅二陰，故腎氣化則二陰通，二陰閉則胃填滿，故云腎者胃之關也。”
- 56) 高：“厥陰爲一陰，少陰爲二陰，太陰爲三陰，故足太陰脾者，三陰也。”
- 57) 吳：“爲之，爲胃也。三陰，太少厥也。脾爲胃行氣於三陰，運陽明之氣入於諸陰也。”
- 58) 景岳：“雖陽明行氣於三陽，然亦賴脾氣而後行，故曰亦也。”
- 59) 姚：“其經，卽脾經也。言五臟六腑必借脾之運化，而後得受胃氣以爲養。胃之津液，亦必借脾之運化，而後得遍及於五臟六腑也。”
- 60) 吳：“水穀化糟粕而有象，故實則傳化不得滿也。”
- 61) 姚：“此以食之所在爲實，食之所不在爲虛，單指腸胃而言也。”
- 62) 陽：“以其胃虛，故氣得上也，以其腸虛，故氣得下也。氣得上下，神氣宣通，長生久視。”
- 63) 張：“所謂二十五陽者，乃胃脘所生之陽也。胃脘者，中焦之分，主化水穀之精氣，以滋養五臟者也。夫四時之脈……皆得微和之胃氣，故爲二十五陽也。”
- 64) 景岳：“土旺中央，其氣化濕。濕潤則土氣王而萬物生。”
- 65) 孔穎達：“甘味生於百穀，穀是土之所生，故甘爲土之味也。”
- 66) 張：“脾志思，思而得之，則發聲爲歌。”
- 67) 景岳：“噦，呃逆也。”
- 68) 張：“津液不能輸布於五臟而獨留在脾，脾氣上溢，發爲口甘。”
- 69) 景岳：“五臟所主，如肝木主春而旺於東，心火主夏而旺於南，肺金主秋而旺於西，腎水主冬而旺於北，唯脾屬土而畜養萬物，故位居中央，寄旺四時各一十八日。”
- 70) 張：“春夏秋冬，肝心肺腎之所主也。土位中央，灌溉於四臟，是以四季月中各旺十八日。是四時之中皆有土氣，而不獨主於時也。五臟之氣各主七十二日以成一歲。”
- 71) 姚：“胃主受，脾主運，胃受水穀而脾爲之運化，使之著見於一身，是胃土之精實由脾著也。”
- 72) 景岳：“土爲萬物之本，脾胃胃臟腑之本，故上至頭下至足無所不及，又豈得獨主一時而已哉？”
- 73) 索延昌：新脾胃論，山西科學教育出版社，山西省，pp. 14-16, 1986.74) 馬：“心本屬火，火之性熱，而受熱則病，故惡熱。”
- 75) 馬：“肺本屬金，金之體寒，而受寒則病，故惡寒。”
- 76) 馬：“肝屬木，其性與風氣相通，而感風則傷筋，故惡風。”
- 77) 馬：“脾屬土，土濕則傷肉，故惡濕。”
- 78) 馬：“腎屬水，其性潤，而得燥則精涸，故惡燥。”

- 79) 張：“五臟在內，而各有所主之外合。”
- 80) 岳：“脾主運化水穀以長肌肉，五臟六腑皆賴其養，故脾主爲衛。衛者，臟腑之護衛也。”
- 81) 景岳：“脾爲倉廩之官，職在轉輸，故曰使之迎糧。”
- 82) 黃元御：“上焦如霧，氣盛於上也。下焦如瀆，水盛於下也。中焦如漚，氣水之交，水欲化氣，氣欲化水，泡波起滅，象如水漚也。”
- 83) 景岳：“受穀食之氣也。”
- 84) 黃元御：“泌，分也。泌糟粕者，猶酒既釀熟，與糟粕分別之也。”
- 85) 張：“上注於肺脈，奉心神化赤而爲血。”
- 86) 楊：“孤，尊獨也。五行之中，土獨爲尊。”
- 87) 景岳：“脾屬土，土爲萬物之本，故運行水穀，化津液，以灌溉於肝心肺腎之四臟者也。土無定位，分旺四季，故稱爲孤臟。”
- 88) 景岳：“山谷，土氣，脾爲土臟，故相通。”
- 89) 楊：“五穀滋味入脾，故穀氣通脾也。”
- 90) 景岳：“足太陰，脾也。胃司受納水穀，而脾受其氣以爲運化，所以獨受其濁，而爲清中之濁也。”
- 91) 景岳：“營出中焦，受氣取汁，變化而赤，是謂血，故曰脾藏營。”
- 92) 張：“腹乃脾土之郭郭，故實則腹脹。涇澹不利者，不轉輸其水也。”
- 93) 楊：“五穀精汁在於中焦，注手太陰脈中變赤，以奉生身，謂之爲血也。”
- 94) 姚：“按《六節臟象論》曰：‘凡十一臟，取決於膽也。’是諸臟腑各有一定之司，而膽則總攬衆職，而決其是非，斷其猶豫，不偏不倚，故官名中正。唯其中正，故能決斷也。”
- 95) 楊：“膽不同腸胃受傳糟粕，唯藏精液於中也。”
- 96) 難經：“膽在肝之短葉間，重三兩三銖，盛精汁三合。”
- 97) 景岳：“五臟六腑，共爲十一，稟賦不同，情志亦異，必資膽氣，庶得各成其用，故皆取決於膽也。”程杏軒：“氣以膽壯，邪不能干，故十一臟皆取決於膽。”
- 98) 東垣：“膽者，少陽春生之氣，春氣升則萬化安，故膽氣春升則餘臟從之。”《景岳全書》：“膽附於肝，主少陽春生之氣，有生則生，無生則死，故經曰凡十一臟皆取決於膽者，正以膽中生氣爲萬化之元也。”
- 99) 萬全：“火亦有二，曰少陰君火，曰少陽相火。君火者，靜而守位，故不主歲，而相火代之。相火者，行君火之令者也，所以流行變化，生長萬物者，皆相火主之也。在人之身，心爲君火，膽與三焦爲相火，故經云十一臟皆取決於膽。”
- 100) 朱邦賢 外：中醫學三百題，上海古籍出版社，上海，pp. 55-56, 1989.
- 101) 朱寶華：“凡十，一臟取決於膽”，山東中醫學院學報，Vol. 16, No. 4, p. 69, 1992.
- 102) 朴恩貞：脾主運化에 關한 文獻的 考察，圓光韓醫大論文集 第六號，p. 167, 1989.
- 103) 景岳：“小腸居胃之下，受盛胃中水穀而分清濁，水液由此而滲於前，糟粕由此而歸於後，脾氣化而上升，小腸化而下降，故曰化物出焉。”
- 104) 景岳：“三里下三寸爲上廉，上廉下三寸爲下廉，大腸屬上廉，小腸屬下廉。蓋胃爲六腑之長，而大腸小腸皆與胃連，居胃之下，氣本一貫，故皆屬於胃，而其下脘亦合於足陽明經也。”

- 105) 楊: “膽不同腸胃受傳糟粕, 唯藏精液於中也。”
- 106) 難經: “膽在肝之短葉間, 重三兩三銖, 盛精汁三合。”
- 107) 張: “大腸居小腸之下, 小腸之受盛者賴以傳道, 濟泌別汁, 變化糟粕, 從是出焉。”
- 108) 吳: “盛貯水穀, 猶夫器物, 故名曰器。”
- 109) 黃元御: “能消化水穀糟粕, 運轉五味入於上口而出於下竅者也。”
- 110) 姚: “入出二字妙, 唯有入故有出也, 大小腸脾胃膀胱皆先入而後出者. 三焦主氣, 何亦并言? 蓋三焦之氣亦借飲食之味而為升降也。”
- 111) 張: “脾為陰中之至陰, 通於土氣, ……受濁者為陰, 故曰至陰之類。”